

아람어

1)아람인들(Aramaeans 또는 Armeans)

아람인(Aramaeans)들은 14 세기의 쉐기문자 텍스트에서 aḥlamē, 그 이후에는 aḥlamī aramaya로 나타난다. 그들은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시리아-팔레스타인과 북아라비아까지 자신들의 정복을 확장한다. 아람어(Aramaic)는 정복된 나라들의 다양한 언어들을 갈아치우면서 기원전 8 세기 시작무렵에는 페르시아 제국의 공식언어 뿐만 아니라 근동의 상호국제적인 언어로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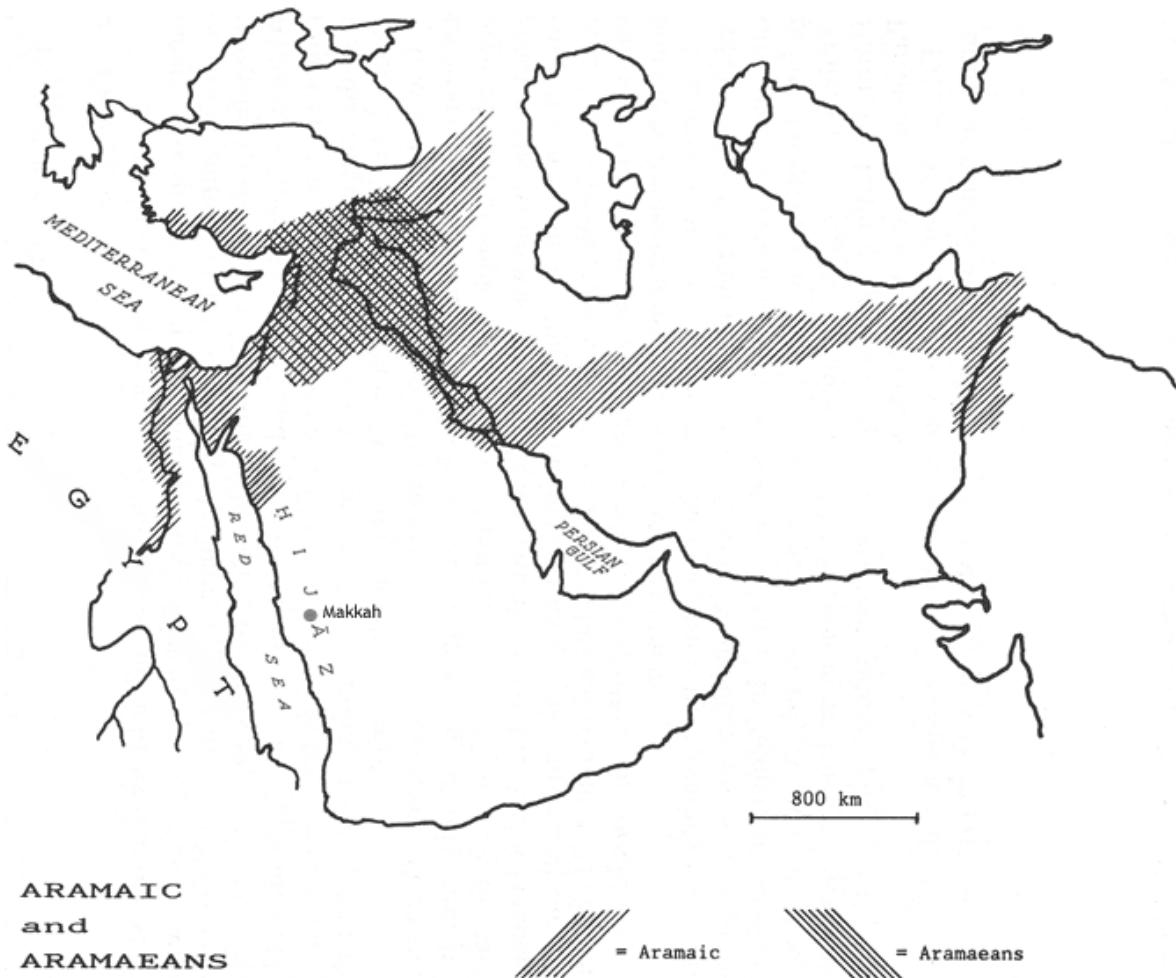


Figure: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Aramaic and the Aramaeans (the people who spoke Syriac).

/페니키아인들이 바다 건너 퍼트린 동방 문화의 그 알파벳과 다른 성취물들은 아람인들에 의해 육로로 전달된다. 아람인들은 북부 메소포타미아와 시리아(Syria)와 팔레스타인에 정착했던, 그 [시리아] 사막으로부터 온 셈족(Semites)이다. 다마스쿠스(Damascus)는 아람인들의 가장 중요한 국가(state)이다. 고대 교역로들을 장악했기 때문에 아람인들은 상인들이 될 수 있었다. 어느 곳에 가든 그들은 그 알파벳과 자신들의 언어(language)를 가지고 갔다. 기원전 8 세기 앗시리아인들에 의해 그들이 정복된 후에도 오랫동안 그들은 무역인들로 남아있었으며 그리고 그들의 언어는 셈족 세계의 국제적인 언어(tongue)가 됐다.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말했던 것도 바로 이 아람어이다. 비록 신약을 저술한 히브리인들이 그들 시대의 새로운 국제 언어인 그리스어로 글을 썼지만 말이다. /

///아람(사람)[Heb ʾārām]. ㄱ)족속(Nations)들의 표로 알려진 창세기 10 장의 족보에서 Shem(셈)의 다섯 번째 아들로 나오는 **Aram**(아람)은 중요한 서부 셈 족속인 아람인들(**Arameans**)의 시조(eponymous ancestor)이다. 아람이 나타나는 족속들의 그 표의 부분은 보통 모세 오경의 사제 재원으로 돌려진다. 사제 재원은 히브리인들의 시조(Eber—창세기 10:24) 보다 두 세 대 앞선 Elam과 Assyria(Ashur)의 시조와 동일한 세대에 아람을 위치시킨다. 셈의 아들로서의 이러한 아람의 위치는 기원전 1 천년 동안의 아람인들의 중요함을 반성한다. 10 장 23 절에 목록화된 아람의 네 명의 아들들은 비록 그 넷 중의 어느 것에 관해서도 거의 알려지지 않았기는 해도 어떤 아람 부족 집단들을 나타낸다. 이 아들들은 역대상(1:17)의 족보 목록에는 아람의 형제들로 목록화된다. 그러나 이것은 아마 역대기들의 텍스트로부터의 “아람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의 중복문자탈락(haplography)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ㄴ)Abraham의 형제 Nahor(창세기 22:21)의 손자인 Kemuel의 아들. Nahor의 족보(창세기 22:21)은 위의 창세기 10에서 발견되는 것과는 다른 아람인들의 조상들에 관한 (그리고 아마 더 이른) 전통을 반성한다. Aram의 아버지 Kemuel을 포함한 Nahor의 열두 아들들은 다양한 아람 족속들의 시조들로 나타난다. (여기서 아마 Aram-Damascus의 [도시]국가의 조상으로 이해될 수 있을) Aram 자신은 Jacom/Israel과 동일한 세대에 위치지워진다. 이런 족보 전통은 창세기에 두루 퍼져 있는 이스라엘과 아람인들 사이의 밀접한 관계의 관념을 강조한다(신명기 26:5을 참

조).

ㄷ)역대상 7:34 절의 Asher의 족보에 나오는 Shemer의 아들로서의 아람.

ㄹ)마태복음 1:3에서 그 그리스어는 예수님의 족보에서 RAM이라는 이름을 제공한다. 킹제임스버전(KJV)은 여기에서 “Aram”을 지니는 반면 현대의 번역은 그것을 “Ram”으로 바꾸는 경향이 있다(역대상 2절9-10). “Aram”이라는 이름은 킹제임스버전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후의 번역들은 “Aram”이 Textus Receptus에서 발견되는 곳인 대부분의 고대 수고들의 텍스트를 따르면서 ARNI 라는 이름으로 교체한다.///

아람인들은 기원전 11 세기와 8 세기에 북쪽 시리아의 광활한 면적을 포함한 지역 곧 아람(Aram)을 차지했던, 북부 셈어로 말하는 부족들의 연합체를 이룬다. 이와 동일한 시기에 이들 부족들 중 몇몇은 동쪽과 남동부로 이주하여 메소포타미아의 넓은 지대를 확보했다.

아람인들의 역사와 언어 재원들은 ㄱ) 기원전 10세기 또는 기원전 11 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고대 아람어 비문들과 ㄴ) 동시대 앗시리아인들의 기록에 언급된 것들과 ㄷ)구약에서의 언급들이다.

2) 역사

부족 계보(Gen. xi, 28ff.)에서와 그리고 Jacob과 Laban의 이야기(Gen. xxxi, 17ff.)에서 거론된 구약 전통에서의 아람인들은 히브리인들에 아주 근접해 있는(akin to)자들로서 그리고 족장 시대부터 즉 아마 기원전 16 세기부터 Harran 근방의 북 Syria 에 거주 했던 자들로서 나타난다. 비록 이러한 전통들이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간주되기는 해도, **아람어로 말하는 부족들의 본래 고향은 구약 전통이 옳게(well) 위치시키는 곳인 Syrian(시리아) 사막(Qedem, “the east”; Gen. xxix, 1)일 것이다.** 이 부족들은 시리아 사막을 빠져나와 인근의 농경지에 정착 해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과 뒤섞인채 살아갔던 많은 다른 유목 **Bedouins(베두윈 족)**의 일상적인 패턴(양식)을 따랐다고 추측될 수 있다. 아람인들은 앗시리아인의 기록들에서 Akhrame 라고 불리우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약탈자들로서 자주 언급된다. 그들이 있었다고 말해지는 유프라테스(**Euphrates**)강 Tall al Amaran에서 발견된 기원전 1375 년의 편지에서 Akhlame(아크라메 인들)은 처음으로 언급된다. 약 50 년 후에

그들은 **Tigris**(티그리스 강)에 다달았지만 앗시리아인들에 의해 격퇴된다. 그들은 기원전 13 세기에 Khabur 강에서 그리고 후에 그들이 정착했던 유프라테스 강 중류에서 앗시리아인의 공격을 받는다.

아람인들의 첫 언급은 Tadmor(Palmyra)로부터 유프라테스 강 중류 Anat와 Rapiqu 전선에서 아람인들과 Akhlame에 맞선 전쟁을 28 번이나 치루었다고 주장하는 기원전 1116년부터 기원전 1076년까지의 앗시리아 왕 Tiglath-Pileser I에 의해 아람인들은 처음으로 언급된다. 11 세기 말까지 아람인들은 **유프라테스 강** 아래 Carchemish의 양쪽에 Bit-Adini 국가(state)를 형성했다. Khabur 계곡에서 그들은 Laqe와 Bit-Bahiani(Tall Halaf)와 Bit-Halupe의 수장국(sheikhdoms)들을 형성했다. Temanai 부족은 그들이 Tur'Abdin 언덕의 Suru에 도달했던 북쪽 끝 지점, Mardin(Turkish Kurdistan)의 남서부 Huzirina와 Gidara와 Nasibina(Nisibis)에 침입했다. 유프라테스의 서부에서 그들은 Amanus 산맥들을 관통하여 Sam'al(Zincirli)에 정착했다. 그 중심은 Arpad를 수도로 삼은 Bit-Agusi의 수장국에 의해 포획(was held)됐으며 그리고 마찬가지로 Hamath도 그들에게 떨어졌다. 저 멀리 남쪽 **Anti-Lebanon** 지역은 아마 Litani 강의 Bit-Rehob와 합체됐을 Beqa'에 있는 Zobah의 수장국과 그리고 Maacah 그리고 **Galilee** 동쪽 Geshur 그리고 **Damascus** 사이로 나뉘어졌다. 기원전 1030 년 경 Zobah의 왕 Hadadezer에 의해 인도된 이들 남부 아람인들의 연합은 Ammonites와 Edomites와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의 아람인들과 함께 Israel을 압박했지만 세 번의 전쟁에서 David에 의해 패퇴했다. 그 이후 시리아의 모든 [족속]은 다윗에게 신하의 예를 갖추었다고 말해진다. 마찬가지로 다윗의 아들 Solomon(기원전 973~936 지배)도 Bit-Adini를 제외하면 동일한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주장했으며 Tadmor(Palmyra)를 확보했던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Rezen 지도하의 Damascus는 그 자체 자유로웠던 것으로 나타난다. Rezon의 계승자들 Bar-Hadad I(히브리어로는 Ben-Hadad, 왕위 이름은 Hadadezer, 아카디아어로는 Adad-iri)와 Bar-Hadad II(앗시리아 기록에서는 Hadadezer)은 다시 싸웠지만 Bar-Hadad II는 그와 평화교섭을 이루었던 이스라엘의 왕 Ahab(기원전 875~852)에 의해 격퇴된다.

Bal-Hadad에 대한 아합의 관대함은 더 나쁜 위협 곧 앗시리아의 공격에 대한 그의 불안 때문이었다. 11세기 동안 아람 부족들은 **시리아**를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유프라테스** 중류와 하류를 따라 그리고 **티그리스 강** 중류를 따라 그리고

거기에서의 아람인들의 침입(usurper)이 Adad-apal-iddin 이라는 이름의 **바빌로니아** 왕의 즉위 [원인이 된] 바빌로니아 저 동쪽까지 퍼져있었다. 기원전 9 세기에 이르러서는 바빌로니아로부터 그 바다[지중해]에 이르는 전체지역이 집단적으로 Kaldu(또는 Kashdu)-성서의 **갈데아(Chaldeans)인들로 알려진 아람 부족**들의 손 안에 있었다. 이렇게 시리아가 거의 둥글게 윤곽이 잡혀졌지(encircled)만 앗시리아의 Ashurnasirpal(기원전 884-859 지배)는 아람인들을 공격했으며 그리고 그 서부에서 Bit-Bahirani의 복종을 받아들였다. 기원전 856년과 853 년에 Bit-Adini를 병합했던 앗시리아의 Ashurnasirpal은 Hamath와 아람과 페니키아와 이스라엘의 군대와 맞서 Karkar에서 싸웠다. 이 전투의 결말이 나지 않았지만 838 년에 Shalmaneser는 유프라테스 중류의 그 [아람] 부족들에 의해서 확보된 지역을 병합시킬 수 있었다.

이스라엘과 Damascus 사이의 전쟁들과 불편한 협정들이 아합 시대 이후 한 세기 동안 교대로 이어졌다. 그런 후 앗시리아의 Tiglath-pilester III는 기원전 740 년에 북 시리아에서의 아람인들의 저항의 중심지 Arpad를 함락시켰고 이어 734 년에는 Samaria를 그리고 732 년에는 다마스쿠스를 굴복시켰다. 마침내 720 년 앗시리아의 Sargon II에 의한 Hamath의 파괴는 그 서부에서의 아람 왕국들의 끝을 표시했다.

Tigris 강 하류의 아람인들은 더 오래 자신들의 독립을 유지했다. 갈데아 인 Merodach-baladan은 약 기원전 722년부터 710년까지 바빌로니아를 지배했으며 앗시리아의 공격들에 저항했다. 그의 죽음 후 혹독한 싸움에서 앗시리아인들은 이십만 팔천 명의 아람인들을 추방[강제 이주]시켰으며 그리고 심지어 689 년에는 바빌로니아(Babylon)를 파괴시켰다. 그렇지만 아람인들은 굴복하지 않았다 바빌로니아가 재 건축됐고 곧 싸움이 다시 시작됐다. 626 년 갈데아 인 장군 Nabopolassar는 스스로 바빌로니아의 왕이라 선언하고 앗시리아를 뒤엎기 위해 Medes와 Scythians과 연합했다 **New-Babylonian** 또는 “**Chaldean**”제국에서의 Chaldeans와 아람인들(Aramaeans)과 Babylonians는 대부분(largely) 구분될 수 없었다.

3)쓰기법(Script)과 언어(Language)



[위 사진: aramaic_Bar-rakib.] **아람어**(Aramaic)는 히브리어와 페니키아어에 아주 가까운 그러나 아랍어와도 몇 몇 비슷한 점을 지니는 셈족 언어이다. 아람어는 **페니키아 알파벳**을 사용했으며 가장 이른 보기는 Tall Halaf로부터의 제단에 [새겨진] 기원전 10-9세기의 것이다. 아람어가 종교적이고 국가적인 의도로 사용됐던 때인 기원전 9세기부터 8세기까지의 많은 보기들이 시리아로부터 [출토됐다]. 이런 비문들은 아람어가 이미 문어(literary language, 文語)로 됐다는 신호들이다. 기원전 8 세기에 이르러 아람어는 방언들로 발전됐다 그러나 **일반적인 형식의 아람어**가 폭 넓게 학습 있는 자들 사이에서 말해졌으며(때로 다른 곳에서처럼, 공인된 버전으로 아람어가 “시리아어(Syrian tongue)”라고 불리워지는 II Kings xviii, 26~28을 참조하라) 그리

고 앓시리아인 자신들에 의해서 거의 두 번째 공식 언어로서 인정됐다. 앓시리아인들에 의한 사람들의 대거 강제이주(deportations)와 바빌로니아 상인들에 의한 *Lingua franca*로서의 아람어 사용은 그 언어를 확산시키는 데에 봉사한다. 신-바빌로니아 시대 무렵에 아람어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됐다. 페르시아 제국(539~기원전 332) 하에서의 “제국 아람어”는 이집트에서 인도에 이르기까지 공식적으로 사용됐다.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 후에 그리스어가 이전의 페르시아 제국에 두루거쳐 동방의 아람어 대신에 공식 언어로 사용됐으나, 아람어 방언들은 자신들의 스크립트들을 Palmyrene와 Nabatean과 Samaritan과 Syriac과 같은 그런 지역적인 형식들로 발전시키면서 로마시대에까지 생존한다. 예를들어 Daniel과 Ezra에서처럼, 구약의 어떤 부분들은 아람어로 돼 있다. Babylonian Talmud는 대부분 하나의 아람어 방언으로 쓰였으며, Jerusalem Talmud는 다른 아람어 방언으로 쓰였다. 팔레스타인의 경우, 아람어가 계속 사람들의 현행 말로서 이어지는 동안 히브리어는 종교와 국가와 상위계급의 언어였다. 이어, 아람어는 예수님과 그 사도들의 언어였으며 아람어 번역들(Targums)이 히브리어 성서와 함께 유통됐다. Damascus 근방의 격리된 소수의 마을들에서 그리고 터키 남동부에서, Tur’Abdin 언덕에서 그리고 Urmia 호수의 동쪽 둔덕(Iran, Azerbaijan 지방)에서 현재까지 일상언어로서 아람어가 보존되는 것과는 별도로 아람어는 계속해서 현재까지 동부 시리아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사용되고 있다. 여전히 아람어는 유대 예배의식의 부분들에서 암송된다.

/// 3-1)Aramaic Script(아람어 쓰기법)

기원전 약 1100 년 경 아람인들은 Canaanite과 Phoenicians에 의해 그 때까지 사용됐던 알파벳 스크립트를 채용한다. 그들은 기원전 8 세기 중반까지 이 동일한 스크립트로 글을 썼다. 더구나 처음에 그들은 심지어 마찬가지로 페니키아인들의 언어로 글을 썼을 것이다. 왜냐하면 9 세기 말 경, (아람 방언으로 말해졌던 곳인 Sam’al) Yadi의 왕 Kilamu의 비석은 페니키아인의 언어로 각인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에 Sam’al로부터의 두 개의 후 대 텍스트들, 즉 소위 Hadad 비문과 Panammu 비문은 지역 아람 (Sam’alian) 방언의 글로 쓰여졌다. 단지 기원전 8 세기 말의 Sam’al의 왕 Bar-Rekub는 Damascus의 왕 Bar-Hadad와 Hamath의 왕 Zakkur와 그리고 Sefire의 고대 아람어 비문의 그것과 다르지 않은 아람 언어로 자신의 비석에 글을 쓴다.

위에서 언급된 모든 비문들의 그리고 다른 아람어 기념 비문들의 스크립트들에서는 어떤 선명한 아람어 특색들이 분별되지 않는다. Bar-Rekub의 비문에서의 두 개의 Bar het를 제외하면 그 스크립트들은 일반적으로 특성상 페니키아적이다. 첫 번째로 구별되는 아람어 특색들은 기원전 8 세기 중엽 **휘어진(Cursive)** 스크립트에서 나타난다. 예를들어 one-bar het가 있는 곳인 Hammat로부터의 각인된 벽돌들에서 처럼(마찬가지로 기원전 마지막 4분의 1세기로부터의 Nineveh로부터의 각인된 Lion weights를 보라).

1979 년에, Gozan 근방의 Tell-Fekheriye로부터의 Assyrian-Aramaic 비문을 지닌 어떤 사람의 생애-크기 상(statue)의 발견의 보고들은 아람어 스크립트의 초기발전에 관해 그리고 (위에서 언급된) 기원전 750 년 경의 페니키안으로부터의 그것의 갈라짐에 관해 이전에 주장된 이론에 관한 몇몇 의심들이 떠 올랐다. 그것의 비문을 지닌 이 상은 기원전 9 세기에 세워졌다는 것이 거의 일반적으로 인정됐다. 그러나 그 비문의 아람어 버전의 스크립트는 동시대의 아람어 비문들과 페니키안 (또는 Moabite) 비문의 스크립트들을 닮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원전 11 세기의 proto-Canaanite script를 [닮았다]. 만약 그 Fekheriye 상 위의 그 아람어 버전이 기원전 9 세기에 쓰여졌다면 그리고 고서체학의 규범이 가리키는 바 대로 기원전 11 세기의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임의적인 고풍화 즉 200 년 전에 사용됐던 일련의 문자들의 성공적인 모방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으리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들은 Gozan 지방에서 아람어로 말하는 사람들은 그 이외의 다른 곳에서 일어났던 발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은 고대(archaic)의 스크립트를 2 세기 동안 보존했다는 결론을 우리는 내려야만 한다.

아람어로 글을 썼던 사람들에게 미친 페니키아인 스크립트의 충격은 심지어 비록 아람어의 음성학적 체계가 페니키아어의 그것 보다 더 풍성했다고 하더라도 아람어로 글을 썼던 사람들로 하여금 단일한 어떤 문자를 첨가함이 없이 페니키아인들에 의해 사용된 22 개 글자들의 세트 그대로를 받아들이게 할 정도로 강했다. 아람어에는 예를들어 아람어에는 d와 z가 있으나 이것들은 페니키아어에서는 단지 z(zy, znh, zhb)로만 쓰였으며, t와 š가 있었으나 그 자음 양자들은 단지 š(šlš, šql)에 의해 나타내어졌다. 단지 기원전 5 세기의 아람어 비문들과 서류들에서 우리들은 dh로 쓰여진 “gole”와 tql로 쓰여진 “to weight”를 발견한다. 심지어 Tell Fekheriye 비문에

서조차 단지 22 문자들만이 사용됐다. 유일한 예외는 t가 š에 의해서가 아니라 s에 의해서 표현됐다는 것이다.

기원전 첫 번째 천년 시작에 아람어 스크립트와 언어는 아람 왕국들의 거주민들에 의해서만 또는 주로 사용됐으나, 기원전 8 세기부터는 앗시리아인들이 이들 [도시] 국가들을 점복한 후에 그리고 앗시리아인들이 아람어 스크립트가 자신들의 쉼기문자 글 쓰기 보다 훨씬 더 편리하다는 것을 인지한 후에, 앗시리아인들은 아람어와 그 스크립트에게 특수한 지위를 부여했다. 아람어가 앗시리아 제국의 서쪽 지역에서 의사소통의 공식적인 수단으로 됐다. 아주 빨리 그것은 외교와 교역에 있어서의 국제적인 언어로 됐다. Hezekiah의 행정관들이 Rab-shakeh에게 “우리들은 그것을 이해하기 때문에”(열왕기하 2Kgs 18장 26절) 자신들에게 아람어(그것)으로 말해주시기를 요청했을 뿐만 아니라, 기원전 7 세기 말 경에 어떤 Philistine(또는 페니키아)의 왕 Adon은 이미 Aphek를 정복했던 전진하는 바빌로니아 군대에 맞서 군대 도움을 요청하는 아람어 편지를 이집트의 왕 Pharaoh에게 썼다. 아람어와 아람어 스크립트의 확산은 바빌로니아 왕국과 페르시아 왕국에서 증가됐다.

(최 남단의 아람어 도시-국가인) Damascus의 앗시리아 정복 해인 기원전 732 년 이후, 아람어는 한 나라의 스크립트이기를 중지했으며 그리고 다양한 나라와 종족의 사람들이 그 아람어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따라서 한 나라의 글쓰는 전통을 특징지우는 보수성에 제한받지 않는 그 아람어 스크립트는 순수하게 실천적인 의도에서 사용됐다. 이런 현상들은 더 오래된 문자 형식들을 유지하지 않는 **휘어진(cursive)** 스크립트의 발전을 가능하게 했으며 그리고 불필요한 어떤 자획(stroke)들이 그 문자들로부터 생략됐다. 일찌기 기원전 7 세기 말 경에 아람어 스크립트는 페니키아 스크립트와 그리고 실천적으로 히브리어 스크립트와 비교하여 볼 때 더 짧아진 것처럼 보였다.

아람어 스크립트는 앗시리아와 바빌로니아와 페르시아 제국들의 모든 지역에서 폭넓게 사용됐다. 소 아시아와 아프카니스탄으로부터 이집트와 북 아라비아에 이르기까지의 광대한 지역에서 겪어지는 아람어 스크립트의 유형은 일정(uniform)했으며, 어떤 지역적인 다양함도 심지어 가장 먼 지역들에서조차 전개되지 않았다. 보수적인 공식적 **휘어진(cursive)** 양식으로 글을 썼던 왕궁의 서기관들에 의해서 그 표준들이 고정됐다. 글 쓰기를 배우는 모든 사람들은 공식적인 필기체적인 스크립트의 표준 필체를 따르도록 가르쳐졌으며 단지 실천적으로 서기관(scribes)들만이 그 필서

(scribal)규칙들에 충실했다. 다른 교육받은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 더 빨리 글을 쓰려 했고 그래서 그 문자들의 형식(forms)들에서의 혁신(innovation)들을 도입했다. 이런 종류의 글쓰기—즉 **자유로운 휘어진 양식**(free cursive style)은 결국 그 스크립트의 발전으로 이끄는 변화의 원인이 됐다. 읽고 쓰는 것을 배웠던 그리고 단지 이런 압의 한정된 쓰임새를 지녔던 자들은 공식적인(formal) 양식을 모방하려 시도했으나 세속적인(vulgar) 필기체 양식으로 서툴게 글을 썼다. **(그것의 세 가지 하위 양식들을 곧 공식적인, 자유로운, 세속적인) 휘어진 양식** 이외에도 마찬가지로 아람어 스크립트는 주로 딱딱한 재료에 새기는 데에 실천했던 **비명적인(lapidary, 碑銘的인, 짧은)** 양식을 지녔다. 그러나 심지어 돌에도 (주로 공식적인 필기체적인) 필기체 양식이 아주 자주 우세했다.

동시대의 페니키아 것들을 닮은 기원전 9세기와 8세기 아람어 기념 비문들의 스크립트들은 비명적인 것이라고 규정될 수 있으리라. 아람어 필기체의 영향은 단지 8세기 후기의 비명적인 글쓰기에서만 보여질 수 있다(예를들어 Bar-Rekub 비문에서의 two-bar het). 그러나 곧 아람어 필기체가 우세하게 됐으며 심지어 장물(stelae)들과 인장(seals)들에도 필기체 문자들이 새겨졌다. 물론 비명적인[짧은] 양식은 모든 곳에 알려졌는데, 페르시아 시대로부터의 가장 유명한 대표적인 것들은 그리고 다양한 Judaeen(유대인)들 쪽에서 유래하는 “Yehud”와 “Mozah” 향아리 인장(stamps)들과 마찬가지로 소 아시아와 그리고 북 아라비아에서의 Tema로부터의 비문들의 것들이다. 그러나 그것의 짝을 이루는 **휘어진** 양식이 생존했으며 그리고 이러한 필기체 양식의 후손들은 심지어 현재에도 존재한다.

기원전 8세기에서 3세기에 이르는 아람어 비문들과 수고들은 일정한(uniform) 아람어 스크립트였다. 이러한 텍스트들의 갯 수는 벽에 새겨진 문자들(graffiti)과 봉헌(dedicatory)비문들과 비석(stelae)들과 무덤 비문들과 국경(boundary)비문들과 인장들과 화폐에 각인된 것(coin legends)들과 점토판들과 그리고 (그것들중 많은 것이 Elephantine과 Arad와 Beer-Sheba로부터 온) 향아리 파편들에 새겨진 것(ostraca)과 그리고 양피지와 파피루스에 쓰인 수고(manuscripts, 手稿)들을 포함하여 아주 많다. 많은 파피루스가 기원전 5 세기에 속하며 상부 이집트의 Elephantine에 위치한 유대 군대 주둔지로부터 유래한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파피루스들은 (기원전 4 세기부터) 팔레스타인의 Samaria의 Wadi Daliyeh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집트의 Edfu(Edfu 파피루스들은 일반적으로 기원전 3 세기부터이다)와 Hermopolis와

Saqqarah에서도 발견됐다.

Elephantine로부터 발견된 대략 100 개의 파피루스들은 이름들의 목록들과 사적인 그리고 공적인 편지들과 법적인 서류들과 그리고 Behistun 비문의 아람어 버전과 Ahigar의 Proverbs와 Bar-Punesh의 단편적인 이야기 텍스트 등의 세 가지 문어적 텍스트들을 포함한다(CAP 71). Elephantine 파피루스들과 향아리 파편들에 새겨진 것들은 기원전 5 세기의 아람어 스크립트의 연구에 아주 중요하다. 법적인 문서들은 정확한 낱자들을 지니고 있으며 그리고 반(半) 공식적인 투로 글을 쓰는 전문가들이거나 자유로운 휘어진 투로 글을 쓰는 임시(chance) 서기관들인 서기관들(Scribes)의 이름들을 언급한다. 고정된 낱자들에 다양한 Elephantine 서기관들의 손으로 쓴 글씨들을 음미할 수 있는 가능성에 덧붙여, 자필(autograph)서명은 다양한 정도의 필체(penmanship)를 지닌 증인들의 글쓰기를 보여준다. 그래서 이런 서명들에서 숙련되지 않은 글쓰는 자의 글쓰기, 세속적인 휘어진 스타일(vulgar **cursive**)이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Elephantine로부터의 전문적인 서기관들의 글쓰기와 그리고 Egypt의 페르시아 지배자, Arsham의 서기관들의 그것 사이에는 선명한 구분이 있다. 후자는 아주 공식적인 휘어진(cursive)투로 글을 썼던 반면에 전자는 자유로운 휘어진 글씨체(cursive)의 영향을 받은 덜 보수적인 반(半) 공식적인(semiformal) 양식으로 글을 썼다. 그러나 Elephantine 서류들의 전문적인 서기관들과 그리고 Arsham 편지들의 그들은 미묘한 차이를 지닌(shaded) 스크립트들로 글을 썼다. 즉 그들은 굵은 수평적인 획들과 보다 얇은 수직적인 획들을 분간하여 글을 썼던 반면 임시 서기관들과 사적인 편지 글씨를 쓰는 자들은 보다 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미묘한 차이없이 그리고 일반적으로 더 발전된 필기체(handwritings)들로 글을 썼다. 그래서 Elephantine 서류들에서는 (자유로운, 공식적인, 세속적인) 휘어진 하위 세 [필체] 양식들이 보여질 수 있다. 이것은 기원전 5 세기에 Elephantine의 많은 거주자들이 읽고 쓰는 법을 알았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거기 뿐만 아니라 아마 페르시아 시대의 다양한 대부분의 지역에 그리고 추측컨데 심지어 더 일찌기 문어적인(literate) 사회가 있었다는 증거(기원전 7 세기 Judah로부터의 히브리인의 비명(epigraphic, 碑銘)적인 재료들은 비슷한 증거를 제공한다)라는 것을 가리킨다.

히브리인들의 스크립트와 페니키아인들의 스크립트에는 비스듬하게 오른쪽으로 내려오는 획(rightward diagonal downstrokes)들이 그어지는(shaded) 반면 아람어 스

크립트에서는 수평적인 가로 줄(horizontal bars)들이 두꺼워진다. 이런 현상은 기원전 8 세기 잉크로-쓰여진 텍스트들로부터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종류의 미묘한 변화(shading)는 일정한(uniform) 아람어 스크립트로부터 전개된 모든 스크립트의 특징이다. (네모 꼴square 히브리어[와 같은]) **Jewish**와 **Arabic**과 **Syriac**과 같은 현대 후손들은 이런 전통을 따른다. *페니키아인들에 의해서 사용됐던 획(shading)의 체계로부터 왜 아람어 스크립트가 파생됐는가를* 설명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가능하게 그 이유는 앗시리아 제국과 바빌로니아 제국의 아람어 서기관들에 의해 사용된 글쓰는 방법에서 발견될 수 있으리라. 아마 근원적으로 아람인들이 아닐 이런 서기관들 대부분은 2 개 언어를 사용하는 자들이었으며 그래서 부드러운 점토 위에 첨필(stylus)를 가지고 췌기문자 스크립트로 글을 쓰곤 했다. 현실적으로 아람어 인증(endorsement)을 지니는 췌기문자 쓰기법으로 쓰여진 많은 점토판들이 있으며 그리고 단지 아람어 텍스트들만을 지니는 다른 점토판들이 있다. 췌기문자 각진-모양(wedge-shaped) 부호들로 글을 쓰기 위해 첨필을 쥐는 길은 철저히 연구되지 않았다. 그러나 아마 아람어로 글을 썼던 서기관들은 췌기문자 서기관(scribes, 필경자)들에 의해 영향을 받았으리라 그리고 이것이 아람어 스크립트와 그것의 후손들에 있어서의 수평적인 변화(shading)의 원인일 것이다.

이스라엘 동쪽 이웃들 즉 히브리어와 흡사한 방언들로 말했던 Ammonites와 Moabites와 Edomites들은 겨우 기원전 9 세기에야 그 알파벳을 배웠던 것처럼 보인다. Moab 왕 Mesha는 Moabite 언어로 자신의 묘비명을 썼으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유대의 거주자들에 의해 사용된 것으로서의 *히브리어 스크립트*를 사용했다. 비록 동시대 Edomite 비문이 현재 알려지지 않고 있긴해도 기원전 9 세기에 Edomites도 히브리어 스크립트로 글을 썼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 그러나 Ammonites는 자신들의 북쪽 이웃들 Aram-Damascus로부터 *아람어 스크립트*를 채용했다(이것의 예를 위해서는 Amman Citadel 비문을 보라).

기원전 732 년 Damascus 몰락 후에 그리고 Ammon과 Moab과 Edom에서의 그 왕의 교통로를 앗시리아인들이 지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Moab과 Edom에로의 Israel과 Judah의 정치적 문화적 영향은 끝나게 됐다. 앗시리아 제국의 서부 영역에서의 공식 스크립트는 아람어였기 때문에 아람어 요소들이 모압과 에돔의 스크립트들에 흘러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기원전 7 세기의 Moabites와 Edomites의 비문들은

히브리어와 아람어와 몇몇 특별한 지방 문자 형식들이었고, 기원전 6세기에는 아람어 형식들이 우세했으며, 결국 히브리어 요소들은 함께 사라져버렸다. 기원전 6세기 후기와 기원전 5세기에는 특히 Ammonite 또는 Moabite 또는 Edomite의 어떤 문자 형식들도 분별될 수 없었고, 비문들은 단지 아람어 스크립트로만 쓰였다. 심지어 Canaanite 방언들로 쓰여진 것들에서조차 [그랬다].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과 페르시아 제국의 몰락 후에 *그리스어*가 아람어 대신에 그 정부의 공식언어와 스크립트어로 들어섰다. 그러나 아람어는 이미 깊숙히 심어져 있어서 이전에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 하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에 의해 계속 말해졌고 글로 쓰여졌다. 일정한(uniform) 아람어 스크립트가 백년 동안 계속 이어지다가 기원전 3세기 중반에 이르러서야 다양한 후손(descendants, 계승언어)들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아람어 스크립트의 동부 계보들 중에는 다음과 같은 가지들이 분별될 수 있다:

ㄱ) **Syriac-Palmyrene** 가지. Syriac 스크립트와 Palmyrene 스크립트들은 많은 공통의 특색들을 지니므로, 그것들이 공통의 시조를 지녔다는 결론은 어쩔 수 없다. 시리아 스크립트와 팔미레네 스크립트 이 양자는 기원전 3세기와 2세기에 그 공식 스크립트에 덧붙혀져 Seleucid 왕궁에서 사용됐던 아람어 사무국 스크립트로부터 발전됐을 것처럼 보인다. 때가 되자 **Syriac**은 그 중심지가 Edessa였던 기독교 공동체의 언어와 스크립트가 됐다. Palmyrene 스크립트는 주로 Palmyrene의 거주민들과 그리고 로마제국 곳곳의 Palmyrene 이주민들에 의해서 사용됐으며 마찬가지로 그것은 이란 방언으로 sectarian 텍스트들을 썼던 Manichaeans에 의해 인정됐을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magic bowls(마법 주발)들에 그것을 새겼던 Babylonia에서도 인정됐다.

ㄴ) **북 메소포타미아** 가지는 Parthian 종주국 하에서 작은 왕국으로 융성했던 곳인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사이의 오아시스 Hatra에서 발견된 비문들로부터 주로 알려진다. 이 스크립트는 마찬가지로 Assur와 Dura-Europus에서도 인정됐으며 그리고 심지어 Armenia와 Georgia로까지 확장됐다. Armenians와 Georgians는 아람어로 말하지는 않았으나 아마 아람어 단어들을 표의문자(ideograms)들로 사용하면서 이

스크립트를 글을 썼을 것이다.

ㄷ)남 메소포타미아 가지는 Khuzistan의 그리고 이란과 아리크의 이숫 지역들의 한 gnostic(그노시스) 분파인 Mandaean에 의해 고대부터 현재까지 사용됐다. 아마 가장 이른 Mandaic 텍스트들은 [기원전] 4 세기부터 유래할 것이지만 가장 많은 수의 텍스트는 기원후 6 세기로부터왔다. Mandaic 스크립트는 Parthians 종주국 하에서 존재했던 다른 작은 왕국인 Elymais에서 사용됐던 아람어 자손으로부터 발전됐다.

ㄹ)Iranian 가지. Parthians와 Persians와 Sogdians은 Achaemenid 시대 동안의 일정한[표준] 아람어 스크립트로부터 발전된 스크립트들로 글을 썼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아람어 표의문자들을 사용했지만 때가 되자 음성학적인 글쓰기가 우세해졌다.

ㄹ)Jewish 스크립트는 중세 그리고 현대 (네모폴) 히브리어 스크립트의 조상이다. F.M.Cross는 그것의 초기 발전들을 세 국면으로 즉 Archaic 또는 Proto-Jewish(약 기원전 250-150), Hasmonaean(약 기원전 150-30), 그리고 Herodian(약 기원전 30-기원후 70)으로 구분했다. 이러한 분류는 Dead Sea Scrolls로 알려진 Qumran에서 발견된 수고들의 다양성에 주로 근거한다(Cross 1961: 174). 이 스크립트를 선호하면서 Jews는 첫 번째 성전 시대의 Israel과 Judah의 거주민들의 국가적인 스크립트였던 old Hebrew script를 무시했다. 그러나 시원적인 Palaeo-Hebrew 스크립트는 작은 집단들에 의해 두 번째 성전 기간에 계속 사용됐다. 이 시원적인 고대 히브리어 스크립트의 내포(connotation)는 주로 국가적인 (화폐) 또는 종교적인 (모세 오경 스크롤과 Jewish 스크립트로 쓰여진 텍스트들에서의 야훼를 나타내는 네 문자 (Tetragrammaton)이었지만, 그 시원적인 고대 히브리어 스크립트는 마찬가지로 종종 일상 생활에서 사용됐다.

그 Palaeo-Hebrew 스크립트는 Jews에 의해 포기됐을 뿐만 아니라(단지 Samaritans에 의해서만 보존됐다), 마찬가지로 휘어진 그 Jewish (cursive)는(Wadi Murabba'at와 Nahal Hever로부터의 파피루스들을 보라) 기원후 135 년 Barkokhba 패배 후에 존재하기를 그친다.

ㅂ)Nabatean 스크립트는 Nabatean 도시들에서 생존했던 기념 비문들로부터 그리고 Sinai에서 발견된 벽에 새겨진 글자(graffiti)들로부터 잘 알려진다. 몇 몇

Nabatean 증서(deeds)들은 기원후 2 세기 초반까지 날짜가 매겨졌던 Nahal Hever 에서 발견됐다. 이들 증서에서 사용된 그 (공식적이며 그리고 자유로운) 휘어진 (cursive) 양식은 그 Nabatean 스크립트가 (고전) 아랍어 스크립트의 조상이라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3-2)아랍어(Aramaic).

아람인(Aramaean)들은 14 세기의 췌기문자 텍스트에서 aḥlamē, 그 이후에는 aḥlamī aramaya로 나타난다. 그들은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시리아-팔레스타인과 북 아라비아까지 자신들의 정복을 확장한다. 아랍어(Aramaic)는 정복된 나라들의 다양한 언어들을 갈아치우면서 기원전 8 세기 시작무렵에는 페르시아 제국의 공식언어 뿐만 아니라 근동의 상호국제적인 언어로 됐다. 그 언어의 최대 확장 시기는 기원전 4 세기부터 그것이 아랍어에 의해 갈아치워졌던 기원후 7세기까지였다. 기독교 시대의 시작 이전까지는 코이노이아(common)아랍어라고 불리워졌던 언어는 두드러진 방언적 다양함들이 있지 않았다. 그 후에 그 언어는 서부 아랍어와 동부 아랍어로 나뉘었다. 코이노이아 아랍어의 문서들은 종류상 다양하다. 다마스쿠스와 Aleppo 사이의 Hamah 왕들 그리고 Aleppo 북쪽 Zingirli에서 발견된 Samal 왕들의 그런 것과 같은, 시리아의 속국들의 비문들은 기원전 9세기부터 기원전 8 세기까지 날짜가 매겨진다. 이집트의 Elephantine(Aswan)의 유대 식민지의 비문들은 기원전 7 세기부터 기원전 4세기까지 그 날짜가 매겨진다. 성서의 아랍어 부분들(에스라 4장 8절~6 장 18절; 7장12절~16절; 다니엘서 2장 4절~7장 28절, 그리고 격리된 문장들)은 기원전 4세기부터 기원전 2세기까지 날짜가 매겨진다.

서부 아랍어 방언들은 Judeo-Aramaic, Samaritan, Palestinian-Christian, Nabataean, Palmyrene와 Western Neo-Aramaic이다. 유대-아랍어는 사해 문서들 중에서 발견된 아랍어 작품들과 그리고 팔레스타인 Targums 즉 구약성서의 아랍어 번역들과 그리고 기원후 5 세기에 편찬된 팔레스타인 탈무드(Palestinian Talmud)와 그리고 몇몇 비문들의 언어이다. 사마르티아-아랍어는 기원후 4 세기의 모세 오경의 번역과 그리고 몇몇 다른 기도들과 종교적인 작품들에 의해서 대표된다. 팔레스타인-기독교 아랍어는 신구약 성서의 번역부분과 기원후 8세기와 9세기 팔레스타인의 기독교인 Melchites에 의해 번역된 몇몇 종교적인 텍스트들의 방언이다. 나바타이아 아랍어는 기원전 1 세기부터 기원후 4세기까지의 시나이, 북 아라비아,

Transjordania를 통한 caravan의 길들에서 발견된 비문들에 있는, Petraea 아랍 그리고 팔레스타인 동부에 이르는 Hauran의 아랍인들에 의해 사용된 아랍어 방언이다. 팔미레네 아랍어는 주로 기원후 첫 삼세기로부터 그 날짜가 메겨지는, 다마스쿠스(Damascus)북 동쪽에 이르는 Palmyra의 비문들의 방언이다. 서부 아랍어는 Ma`lula (기독교)와 그리고 Bah`a와 Guba`din(무슬림) 마을들의 레바논과 Anti-Lebanon의 산악지대들에서 여전히 말해진다.

동부 아랍어는 Syriac와 그리고 Babylonian Talmud의 Aramaic과 그리고 동부 Neo-Aramaic을 포함한다. 시리아 아랍어는 2세기 말경 기독교의 중심지였던 (현대 Urfa) Edessa의 언어이다. 기원후 5 세기 이후로 신학적인 차이때문에 시리아 아랍어로 말하는 기독교인들은 페르시아 영향 하의 Nestorians 또는 East-Syrians 그리고 비잔틴 영향 하의 Jacobites 또는 West-Syrians로 나뉜다. 이 두 그룹들은 발음 차이들에 의해서 언어학적으로 구분됐다. 시리아 문학의 가장 위대한 시기는 3세기와 7 세기 사이였다. 기원후 6 세기 경에 편찬된 바빌로니아 탈무드의 아랍어는 동부 아랍어 그룹의 중요한 다른 방언이다. Mandaic 아랍어는 메소포타미아 하류의 (Sabaeans라고 불리우는) 그노스틱 분파(gnostic sect)의 방언이다. 동부 아랍어 방언은 Urmia 호수와 (네스토리아 인들, 때로는 앗시리아 인들에 의해 불리웠던) Van 호수 사이 지역에서 그리고 Tur Abdin(Jacobites)의 관할구에서 그리고 Mosul의 북쪽지역에서 여전히 말해지고 있다.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선교사들은 모술 방언을 문어로 발전시키려고 노력했다.

///모든 아랍어 방언들은 다른 것들 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언어학적인 새로움들공유한다: ‘아들’과 ‘딸’과 ‘둘’ 등의 경우 *r에로의 아마 모음적인 *ŋ이었을 것의 변화(예를들어 아들의 경우 *bŋ > *bir, Testen 1985); 가나안 언어들의 *nũ와는 반대로, 모든 환경에서 일인칭 복수의 접미사로서의 *nã일반화; 새로운 사역-재귀 변화의 발생, *hittaqtal (vs. 초기 썸어 *(v)štaqtala); 그리고 (히브리어 Nip`al에서처럼) 수동형 n-어근의 손실. 현대 말해지고 있는 언어들을 제외한 모든 아랍어 방언들은 비록 그 언어의 형식들 중에 많은 고서체의 다양한 스크립트가 있긴 해도, 페니키아 인들로부터 빌려온 22 개 알파벳으로 오른 쪽에서 왼쪽으로 쓰여진다.

그 언어의 가장 초기 국면의 것으로 알려진 고대 아랍어는 기원전 9 세기 중반부터 기원전 6 세기까지 그것들 중에서 어떤 것은 아주 긴, 북 시리아의 Tell

Fakariya로부터의 2 개 언어적인 앓카디아-아람어 비석과 더불어 시작하는, 작은 수의 비문들에서 입증된다. 이런 비문들 대부분은 어떤 표준 방언을 보여주기 보다는 오히려 방언적인 다양성을 가리키면서 서로에 관련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언어적인 특색들을 드러낸다

아람어는 기원전 6~4세기 페르시아 제국의 공식언어가 되면서 언어의 사용이 넓어질 뿐만 아니라 공식적 또는 제국 아람어라고 불리우는 표준방언을 생산해내는 발전을 이룬다. 어떤 것은 이집트에서 쓰여지고 어떤 것은 예를들어 페르시아에서 쓰여졌던 많은 수의, Official 또는 Imperial Aramaic과 피루스 텍스트들이 이집트와 팔레스타인에서 발견됐다. 에스라 서의 성서 아람어도 이러한 제국언어 시기에 놓여질 수 있을 것이다. 페르시아 붕괴 후 아람어 텍스트 그룹들 사이의 방언적인 다양함이 다시 한 때 두드러지게 된다.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후 2세기의 기간은 중기 아람어(Middle Aramaic)라고 집단적으로 명칭불혀지는 많은 수의 아람어 텍스트들을 생산한다. 시리아와 Transjordan 으로부터의 이 시기의 비문의 방언들은 Nabatean, Palmyrene, Hatran, 그리고 old syriac이다. 표준 문어 아람어(Standard Literary Aramaic) 라고 용어화됐던 쓰여진 (Written, 문어체) 방언이 다니엘 성서의 아람어에서 그리고 꿈란으로부터의 많은 아람어 텍스트들에서 그리고 Onqelos와 Jonathan Targums의 아람어에서 확인된다 (attested). 이 시기의 다른 팔레스타인 아람어 텍스트들은 Bar Kokhba 편지들과 무덤 비문들과 미슈나에서 인용된 낱말들과 구(句)들과 기독교 신약성서이다. 분산된 텍스트들도 예를들어 이집트와 저 멀리 떨어진 아프카니스탄에서 발견됐다.

기원 후 3 세기부터 우리는 세 가지 주요한 후기 아람어(late Aramaic) 가지들을 구분할 수 있으리라. ㄱ) Late Western Aramaic은 쉬나고게(유대회당)와 장례 비문들과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 탈무드와 미드라쉬와 타르굼들의 언어인 Galilean(또는 Jewish) Aramaic, 그리고 Judean 또는 Christian Palestinian Aramaic(소위 Syro-Palestinian or Palestinian Syriac), 그리고 Samaritan Aramaic을 포함한다. ㄴ) Late Eastern Aramaic은 바빌로니아 탈무드 언어인 Babylonian Aramaic과 그리고 남부 바빌로니아의 gnostic Mandaean의 언어인 Mandaic과 그리고 기원후 4~7세기로부터 온 사발에 쓰여진 주술적인 실제 주문 방언을 포함 한다. ㄷ) 고대 시리아어(old syriac)에 근거를 둔 그리고 서부와 동부 아람 양자에서 발견되는 특색들을 드러내 주는 문어적인 시리아어(literary Syriac)는 기원후 4~13세기까지의 방대한 기독교

문헌의 언어이다. 동부(Nestorian)와 서부(Jacobite) 방언이 인정된다. 기원후 7세기 이슬람의 확장과 더불어 말해진(spoken, 일상) 언어로서의 시리아는 쇠퇴하기 시작한다.

Modern Aramaic Language는 근동의 다양한 부분들이 공동체 좁은 지역에서 그리고 상대적으로 최근인 이주의 결과로서 [구]소련과 스웨덴과 미국과 같은 나라들에서도 계속 [일상언어로서] 말해지고 있다. 신-아람어 방언들의 주요 네 가지 방언들이 알려져있다: 단지 다마스쿠스(Damascus)의 북동 세 마을(기독교마을 Ma`lula와 그리고 무슬림 마을 Jubb`daïn과 Bah`a)들에서만 말해지는 Western; 남동 터키의 마을들에서 말해지는 Turoyo(여러 방언들)dhk Mla≥hsq로 이루어진 Central; 본디 Kurdistan과 그 근방이었지만 지금은 넓게 흩어진 수십만의 사람들에 의해 말해지고 있는 자주 의의있게 나뉘어진 방언들의 큰 그룹인 Eastern(마찬가지로 비록 고전 시리아어와 직접 관련되지는 않았지만 NeoSyrac이라고도 불리운다); 그리고 서부 이란의 Ahwaz에 사는 소수 Mandaean에 의해 말해지는 Neo-Mandaic.///

///아람어는 (마찬가지로 특히 Hebrew, Phoenician, Ugaritic, Moabite, Ammonite, 그리고 Edomite를 포함하는) 언어들의 북서(NW) 썸어 하위 군 중에서 가장 잘-확인되는 그리고 가장 오래-확인되는 구성원이다. 아람 원어로 보존된 성서 텍스트의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Dan 2:4-7:28; Ezra 4:8-68 그리고 7:12-26; Jeremiah 10:11; Gen 31:47[두 낱말들] 마찬가지로 기독교인의 저술(Scriptures)에서의 격리된 낱말들과 구들)은 성서 연구들을 위한 그리고 종교 일반의 연구들을 위한 이 언어의 중요성을 속인다(belies). 왜냐하면 아람어는 약 기원전 600년 부터 기원후 약 700년까지 근동을 두루 거쳐 문학과 의사소통의 우선적인 상호국제적인 언어였으며 그리고 기독교와 Rabbinic Judaism(랍비 유대교)의 형성시기들에 있어서의 Palestine, Syria, 그리고 Mesopotamia의 주요한 말해진(spoken, 구어) 언어였기 때문이다.

복음서들 안의 이야기들에 따르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아람어로 말했다. 그 복음서(the Gospels)과 사도행전(Acts)의 부분들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히브리어 성서의 후기 책들의 부분들은 아람어 원본(Aramaic originals)으로부터의 번역들로 자주 간주됐다. 그러나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은 의심없이 그것들의 어투(diction)에서 강하게 의심할 것도 없이 강하게 “아람어화됐다”. 후기 성서 히브리어와 랍비 히브리어(rabbinic Hebrew)는 문법과 어휘 이 양자에 있어 과도하게 아람

어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그 히브리어 성서의 주요한 번역 전통들의 두 가지 곧 Syriac Peshitta와 the Jewish Targums은 랍비 문헌의 실제적인 문들과 Syriac 기독교의 전체적인 문어 저술들과 Mandaean(남부 메소포타미아의 비(非)-기독교적 gnostic(그노시스적) 분파)의 실제적인 문들과 마찬가지로 *아람어*로 돼 있다. 모슬렘(Moslem) 정복 후에 *아람어*가 아람어 대신에 점차적으로 근동의 문어와 일상어로 들어섰다. 여전히 현대 아람어 말(speech)의 격리된 좁은 지역들이 오늘 날까지 남아 있으며 그리고 학식있는, 종교적인 언어로서의 고전 시리아어(classical Syriac)의 연구와 사용이 결코 멈추어지지 않았다. 실로 그것은 최근 수십년 동안의 다소간의 부흥의 증거를 지닌다(EJ 3: 259-87을 보라).

3-2-1)아람어의 시대구분들과 재원들

3-2-1-1)고대 아람어

3-2-1-2)제국 아람어

3-2-1-3)중세 아람어

3-2-1-4)후기 아람어

3-2-1-5)현대 아람어

3-2-2)언어학적인 개관

3-2-2-1)고대 아람어

3-2-2-2)제국 아람어

3-2-2-3)후대 방언들

3-2-1)아람어의 시대구분들과 재원들

문법과 사전적인 어계(stock)와 용법의 커다란 변화들이 그 동안에 일어났던 거의 3000 년의 시기 내 내 아람어는 확인된다. 여러 아람어 방언들을 연대학과 지질학에 근거하여 시기들과 집단들과 하위그룹들로 나누는 분석이 일반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것이 입증됐다. 비록 보편적으로 인정된 그러한 분류 국면들의 도식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리고 새로운 발견들이 규칙적으로 특히 빈약하게 확인되는 고대 방언들을 위한 우리의 그림을 변경시키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모양의 개요는 선명하다.

다음의 도식이 그 분야-포괄적인 아람어 사전-에서의 주요한 탐구 계획에 의해 채용되며 그리고 1980 년 중반을 통한 발견들과 조화를 이룬다.

3-2-1-1)고대 아람어(약 기원전 612년까지).

이 시기는 고대 근동 역사에서의 주요한 힘으로서의 아람인들의 발흥과 신-앗시리아 제국의 후기에 상호 국제적인 외교 언어로서의 아람인들의 언어의 채용과 앗시리아의 분산 정책의 결과로서 이집트로부터 하부 메소포타미아까지에 이르는 아람어로-말하는 사람들의 강제이주를 목격한다. 이 시기들로부터 보존된 소멸하지 않는 재료들 위의 비문들의 흩어진 그리고 일반적으로 간략한 유물들은 상호국제적인 표준방언이 아직 발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논증하기에 충분하다. 현존하는 텍스트들은 [다음의] 여러 방언들로 그룹지워질 수 있으리라:

ㄱ) **Standard Syrian(또는 Western Old Aramaic)**. (기원전 9 세기 중반부터 기원전 8 세기 끝에 이르는) 아주 한정된 연대기적 그리고 (Aleppo에 집중된 약 반경 100 Km 내의) 지질학적 분포의 이들 비문들은 [다음의 것들을] 포함한다:

BR-HDD: Aram의 왕 BR-HDD에 의해 (Tyre의 신) Melqart에 헌정된 간략한 비석(stela)

Zakkur: Hamath의 왕 Zakkur에 의해 신 Uluwer에게 헌정된 비석. 그것의 텍스트는 추수감사절에 관한 많은 시편들의 회고이다.

Sefire: Arpad의 왕 Mati'el과 KTK의 왕 BR-G'YH 사이의 조약의 텍스트를 포함하는 세 가지 비석. KTK의 왕 BR-G'YH은 분명히 Neo-Assyrian Syrian 속주(provinces)들 중의 하나의 지배자(아마 Bit-Adinidml Šamši-Ilu일 것이다[Lemaire와 Durand 1984])이다. 이 텍스트는 계약적인 축복과 저주의 서부 셈족 전통을 위한 성서 외부의 가장 탁월한 우리의 재원이다.

Nerab: 달의 신 Šehr에 관한 두 사제들의 장례 비석.

BR-BKB: 아래 Samalian을 보라.

ㄴ) **Samalian**. (마찬가지로 몇몇 학자들에 의해 Ya'udi로 지시되는) Sam'al의 Neo-Hittite 왕국의 왕조들은, 현대의 Zinçirli, 처음에는 페니키아어로(KLMW), 그 다음에

지역적인 고도로 특유한 아람어 방언(소위 Hadad와 PNMW 비문들)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표준, Syrian Old Aramaic(BR-RKB)로 썼다.

ㄷ)Fakhariyah. 상(statue)위에 새겨진 2 개 언어적인, 신-앗시리아와 아람어 비문. 이 비문의 스크립트와 정서법은 알파벳의 역사를 위해 아주 중요하다(Kaufman 1986).

ㄹ)Mesopotamian. 점토판 위에 굽혀진 주로 간략한 경제적인 그리고 법률적인 텍스트들과 보증(endorsements)들로 이루어진다(Fales 1986; Kaufman 1989). 놀랄 것도 없이 Fakhariyah와 Mesopotamian 방언들은 Akkadian 영향의 실제적인 량을 증거한다.

ㄱ)Deir 'Alla. cultic 장치의 회반죽 벽에 그려진 이 중요한 그러나 단편적인 텍스트는 신명기(Numbers 22-24)로부터 알려진 요르단 건너편(Transjordanian) 예언자, “Beor의 아들 Balaam”의 환영(vision)을 상술한다. 몇몇 학자들이 이 텍스트의 언어를 아람어 보다는 오히려 Canaanite 방언으로 분류한다는 사실은 Canaanite와 Aramaic를 이 시기에 분리시키는 어떤 논증가능한 나누는 선(또는 언어학적 용어들로 말하자면 등어선(isoglosses, 等語線)이 있지 않다는 것을 예시한다.

3-2-1-2)제국 아람어(또는 “공식적인 아람어”, 기원전 8세기 말부터 약 기원전 200 년까지)

이 시기 동안에 아람어는 그것의 자국 땅의 경계를 넘어 신-바빌로니아와 심지어 더 큰 페르시아 제국들의 광대한 영토들—상부 이집트로부터 소아시아까지 그리고 동쪽으로는 인도 아대륙으로까지—로 확산된다. 불행히도, 이들 제국들과 함께 유지됐던 행정서류들과 기록들과 편지들의 한 때 광대한 저작들의 단편(remnant)들만이 보존됐다. 왜냐하면 그런 텍스트들은 더 이른 서 아시아 문화들의 보다 더 지속적인 췌기문자 점토판들과는 날카롭게 대조되는 소멸적인 재료들 위에 잉크로 쓰여졌기 때문이다. (단일한 음절적인 췌기문자 아람어 텍스트인 Uruk으로부터의 한 주문(incantation)이 알려진다. 비록 헬레니스 시대로부터이기는 해도 그것의 시원적인 언어는 이 시기 것으로 돌려진다). 꺾리된 기념적인 돌 비문들이 다양한 주변 지역들에서 발견됐다(예를들어 이집트에서의 Sheik Fadh, Arabia의 Teima, 소아시아의 Daskyleion). 그러나 아주 놀랍게도 Syria와 Mesopotamia의 핵심 지역들에서는 어떤 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발견된 것들 중 많은 것은 건조한 기후가 기대된 항아리 파편 조각들(Ostraca)과 돌 비문들과 나란히 파피루스와 가족의 보조어로 이끌었던 **이집트**로부터 온다. 이집트에서 발견된 주요한 것들은 ㄱ) (판매 증서들과 결혼 계약들과 예루살렘의 권위자들에게로의 공식적인 편지들과 문어적인 자료들의 단편들을 포함하여) Elephantine/Syene에서의 유대 군대 주둔지의 파피루스 아키브(archives)들; ㄴ) 이집트 페르시아인 총독, Arsames의 편지; ㄷ) Hermopolis에서 발견된, Syene와 Luxor에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에게 보내진 편지 다발들; 그리고 ㄹ) 바빌론의 왕에 맞서 싸우는 Philistine (아마도 Ekron의) 왕이 pharaoh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기원전 7세기 후반의 파피루스인 Saqqarah; 그리고 기원전 5세기와 4세기로부터의 파피루스와 항아리파편들에 새겨진 법적이고 그리고 경제적인 기록들.

Ezra 책에서의 아람어 “공식적인” 편지들은 거의 확실히 제국 아람어로 작성됐다 왜냐하면 그것들의 언어와 그것들의 서한적인(epistolary, 書翰적인) 양식 이 양자는 그 시기에 적절한 것이기 때문이다.

Jericho 근방의 Wadi Daliyeh 동굴에서, 접근하는 마케도니아 군대로부터 분명히 도망쳐 온 것처럼 보이는 약 200 명 가량의 사람 두개골들과 더불어, 발견된, 기원전 4세기 중반까지 날짜가 매겨지는 판매의 단편적인 파피루스 증서들은 그것들의 내용 보다는 그것들의 역사적인 문맥 때문에 훨씬 환상적이다.

언어학적인 관점으로부터 보면, 무엇보다 이 시기를 특징지우는 것은 그것이 그 언어와 그리고 최소한도 문어적인 텍스트들과 공식적인 문서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상(ideal)인 그것의 정서법 이 양자의 문어적인, 표준적인 형식의 발전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표준 모델은 교육받은 페르시아인들에 의해 말해지고 글로 쓰여진 것으로서의 바빌로니아 아람어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표준 문어적인 아람어의 모습에 있어서의 이러한 이상은 천년 동안 이상 지속됐다.

3-2-1-3) 중세 아람어(기원전 200년부터 약 기원후 250년까지).

헬레니즘 시대와 로마 시대에는 그리이스어가 아람어 대신에 근동의 행정언어로서 들어섰다. 반면에 다양한 아람어로 말하는 지역들에서는 방언들이 서로에 독자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글로 쓰여진 언어가 그렇듯이, 글로 쓰여진 아람어는 다소 인위적이고, 엇갈린-방언적 일정성(cross-dialectal uniformity)을 제공함에 의해서 다양한 집단들 안에서 그리고 사이에서 의사소통의 탈 것으로서 계속

봉사했다. 이러한 의도를 위해서는 그 이전의 시기에 발전됐던 문어적인 표준어가 사용됐지만, 지역 인구들의 언어(들)과 방언(들)에 근거한 사전적인 그리고 문법적인 차이들이 항상 명백했다. 이 시기에 생존하는 텍스트들을 두 가지 주요 범주들 곧 비명적인(epigraphic) 것과 정경적인(canonical) 것으로 나누는 것은 도움을 준다:

ㄱ)비명적인 것. ㄱ-1)*Palmyrene*: Tadmor/Palmyra의 독립적인 시리아 사막 오아시스 교역도시로부터의 현정적인 그리고 명예적인 비문들과 의무적인 관세 법령(가장 이른 것은 기원전 33 년). 그 텍스트들 중 많은 것은 그리스어가 함께 쓰인 2개 언어적이다. ㄱ-2)*Nabatean*: Petra의 Arab 왕국으로부터의 무덤과 봉헌 텍스트들(가장 이른 것은 기원전 170 년). Bar Kokhba 시기로부터의 저장된 법적인 파피루스들은 Naḥal Hever 동굴에서 발견됐다. ㄱ-3)*Hatran*: 중요한, 기원후 2 세기 Hatra의 Parthian 왕국으로부터의 봉헌적인 비문들. 보다 작은, 비슷한 집단이 Assur 근방에서 발견됐다. ㄱ-4)다른 것들: Syria(특히 Dura-Europos), 소아시아, Armenia, Georgia, Media, Parthia, Persia, 그리고 Babylonia로부터의 격리된 비문들. 유대(Judean) 사막으로부터의 아키브 재료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위치한다.

ㄴ)정경적인 것. ㄴ-1)*Daniel*. (에스라에 있는 자료들과는 대조적으로) 이 성서의 아람어 부분들은 선명히 제국 아람어 보다는 오히려 이 방언에 속한다. ㄴ-2)**유대 문어 아람어**. ㄴ-2-1)*Qumran*. Dead Sea 사해 두루마리들 중에서 비분과적인, 성서 외경적인(parabiblical) 자료들 중의 (대부분은 아니지만) 많은 것이 아람어로 돼 있다. 이것은 Genesis Apocryphon, Targum of Job, Enoch의 책들, 그리고 Levi의 Testament을 포함한다. ㄴ-2-2)*Targum Onkelos/Jonathan*. 비록 단지 유일한 의존 가능한 수고들이 궁극적으로 Babylonian academies로부터 유래하기는 해도, Thran 에로의 Targum Onkelos 그리고 그 예언자제로의 Jonathan의 자음적 텍스트들은 의견상 이 시기의 팔레스타인에서 기원한 것이다. ㄴ-2-3)**Legal Formulas**. 권위적인 아람어 전통의 텍스트들과 규범(formulas)들이 랍비 문헌에 보존돼 있다. ㄴ-3)**중기 이란어 표의문자(ideograms)**. 자신들의 기념 비문들을 위해 쉐기문자들을 간략하게 가지고 논(flirtation) 후에, 페르시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언어를 글로 쓰기 위해 아람어 스크립트를 채용한다. 그리고 아마 쉐기문자 모델 하에서, Parthian과 Pehlevi 이 양자의 경우 아람어 표의문자들이 어떤 페르시아어 사전적 낱개(units)들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됐다. ㄴ-4)Demotic Material(일상적인 재료들). 마찬가지로 분명히 이 시기의 가장 초기 부분부터 아람어 재료들은 파피루스 Amherst 63 위에 새겨진 demotic(민용적인, 民用) 스크립트로 보존됐다. 이 파피루스는 Canaanite/Aramaic 방언이 뒤섞인 여러 찬양시들과 그리고 상대적으로 좋은 아람어로 두 앗시리아 왕족 형제들 Assurbanipal과 Shamashshumukin 사이의 긴 갈등의 이야기를 포함한다. 이 재료의 해독은 느린 과정이었다. 그러나 많은 기대하지 않았던 특징들이 이 텍스트의 아람어에서 나타난다는 것은 이미 선명하다. 표준 문어 아람어가 정서법 전통에서 아주 많은 기능을 했으므로,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형식들의 여기 발생은 크게 놀라운 것이 아니다.

3-2-1-4)후기 아람어(약 기원후 250년부터 기원후 약 1200 년 경까지)

아람어를 위한 우리의 많은 증거는 이 시기의 방대한 문헌과 종종 있는 (occasional) 비문들로부터 온다. 이 시기의 초기 세기들 동안에는 아람어 방언들이 여전히 넓게 말해졌다. 그러나 이 시기의 후 반부 동안에는 아람어가 아람어 대신에 많은 인구의 말해진 언어로서 들어섰다. 따라서 우리의 텍스트들의 많은 것은 자신들의 아람어 방언이 단지 확실있는 언어였던 사람들에게 의해서 작성됐고/됐거나 전달됐다. 비록 이 시기의 방언들이 이전에는 두 가지들(Eastern과 Western)로 나뉘었기는 해도, 오히려 Palestinian과 Syrian과 Babylonian 이 세 가지로 생각하는 것이 지금은 가장 나올 것처럼 보인다.

ㄱ)Palestinian. ㄱ-1)Jewish. ㄱ-1-1) (대부분 회당으로부터 온) 비문들; ㄱ-1-2)Targumic: Palestinian Targums의 방언(Neofiti, Genizah 단편들, 단편 Targum); ㄱ-1-3)Galilean: Talmud의 방언들과 그리고 Palestine의 midrashim(소위 “Yerushalmi”). ㄱ-2)Christian. 기독교 팔레스타인 아람어는 Syriac 스크립트들로 쓰여진 유대 지역으로부터 온 비문들과 성서번역들과 그리고 예배 성구들. ㄱ-3)Samaritan. Torah의 두 개의 다른 번역들과 예배 시와 그리고 몇몇 문어적인/해석적인 작품들이 이 집단으로부터 보존된다. 현대 사마리아 사제들의 읽는 전통은, 그것들의 히브리어 전통에서처럼, 여기에서 가치있는 언어학적인 재원이다.

ㄴ)Syrian. ㄴ-1)Syriac. 동방 기독교의 예배 언어가 여태까지 가장 장 서류화된 아람어 방언이다. 두 가지(Eastern/Nestorian, Western/Jacobite) 방언들과 정서법들

로 된 방대하며 다양한 문헌이, 비석과 아키브적 재료들의 작은 모음들과 마찬가지로, 보존됐다. Syriac의 정서법은 표준 아람 문어(Standard Literary Aramaic)에 근거하는 반면 그것의 사전과 문법은 주로 Edessa 도시의 그것들이다. ㄴ-2) 후기 유대 아람 문어. 겨우 최근에야 인정된 이 문어적 방언은 성서 외경적인 그리고 제의적 텍스트 아람어의 작문(이것들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은 Targum Pseudo-Jonathan, Targum Psalms, 그리고 Job의 canonical Targum이다)을 위해 그리고 몇몇의 경우(Tobit와 다른 것들)에는 그것의 히브리어 원본 또는 아람어 원본이 손실됐다고 추측된 작품의 아람어 번역을 위해 봉사했다. 다른 문어적인 방언과 비슷하게, 그것은 자신의 선조로부터, 이 경우에는 성서 아람어와 유대 아람 문어와 유대 팔레스타인 아람어와 유대 바빌로니아 아람어로부터, 과도하게 차용한다. 대부분의 랍비 재료들과 비슷하게, 그 텍스트들은 전달의 과정에서 크게 손상(suffered)을 입었으며 그리고 자주 많은 비일관성을 제공한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비록 그것 자신의 문법과 사전을 지닌 방언이기는 해도, 이것은 실질적이라는 것을 드러냈다. 그것의 사전적인 흡사함은 Syriac로 말하는 지역과의 밀접한 관계를 가리킨다.

ㄷ) **Babylonian.** ㄷ-1) **Jewish.** 바빌로니아의 유대인들의 말해진 언어는 우선적으로 대부분 바빌로니아 탈무드(**Babylonian Talmud**)에서 보존됐다. 다소 다른 방언들이 “마법 사발들”(도자기 사발들에 글로 쓰여진 주문들)과 Talmudic 바빌로니아 현자들(ga'onim)의 halakic 문헌에서 발견된다. Yemen 유대인들의 글로 쓰여진 그리고 구어적인(oral) 전통들은 특히 이러한 재료를 위한 중요한 재원이다. ㄷ-2) **Mandaic.** 비(非)-기독교적인 그노시스 분파의 말해진 그리고 문어적 언어. 그 분파 자체는 일반적으로 Palestinian 기원들을 지니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그것의 언어는 토탈적으로 메소포타미아 본국(at home)의 것이다.

3-2-1-5) 현대 아람어(기원후 약 1200 년 경부터 현대까지)

이 방언들은 동일한 세 가지 지질학적 집단들로 나뉠 수 있다.

ㄱ) *Western.* 여기의 아람어는 여전히 단지 (Damascus 북북동쪽 약 30 마일 지점의) Ma'lula의 도시와 그 주위 촌락에서만 말해진다. 그 어휘는 과도하게 아랍어화됐다.

ㄴ) *Syrian.* 서부 Syrian(Turoyo)은 남동 터키 Tur-Abdin 지역에 있는 Jacobite 기독교인들의 언어이다. 이 방언은 고전 시리아어와 아주 비슷한 어떤 것의

후손이다. 동부 Syrian은 Iraq, Iran, Turkey, 그리고 Azerbaijan의 Kurdistani 지역들에서 기독교인들에 의해 그리고 이전에는 유대인들에 의해 말해진다. 전자의 실제적인 공동체는 지금 북 아메리카에서 발견된다. 그 유대 화자들은 대부분 이스라엘에 정착했다. 이런 방언들은 그들의 각 각 공동체들에서 폭 넓게 말해졌으며 그리고 지난 세기 동안 광범위하게 연구됐다. 그것들은 알려진 어떤 문어적인 아람 방언의 후손들이 아니라는 것이 선명하게 됐다.

ㄷ)Babyonian. Mandaic이 여전히 최소한도 최근 이전까지 남동 이라크와 인접 이란 지역들에서 몇몇 Mandaean에 의해서 여전히 말해진다.

덧붙여서, 최근에 고전 시리아어(Syriac)가 중동과 그리고 유럽과 북 아메리카의 이주 공동체들 사이 이 양자에서 시리아 기독교인들을 위한 의사소통의 확실있는 탈것으로서 다소 부흥했다.

3-2-2)언어학적인 개관

다음의 요약은 아람어의 더 잘 알려진 친족어인 성서 히브리어의 근본 구조를 익히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3-2-2-1)고대 아람어

3-2-2-1-1)음성학.

비록 발음(articulation)에 있어 어떤 사소한 변화들이 가리켜진 것처럼 보여지기는 해도, 이 시기의 Proto-Semitic 음소 목록은 사실 변하지 않고 생존한다. Canaanite/Phoenician 재원으로부터 차용된, 아람어를 위해 사용된 선형(linear)적인 자음 알파벳은 단지 22 개의 서기소(graphemes, 書記素)들만을 지니므로, 그러나 그 문자들 중 여럿은 다성(polyphonous, 多聲)음을 지녀야만 했다: 그래서,

šin은 š과 ś과 t를 가리킨다

samek은 (단지 Fakhariyah에서만) s와 t 이 양자를 가리킨다.

zayin은 z와 d를 가리킨다.

ṣade는 ṣ와 z를 가리킨다.

qop는 q와 ḏ를 가리킨다(아마 이 시기까지는 연구개 마찰음이었을 것이다)

ḥet는 ḥ와 ḫ를 가리킨다.

‘ayin은 ‘과 ḡ를 가리킨다.

이런 자음소들이 (자신들의 등가 글자(graphic)에 흡수되지 않고 오히려) 여전히 살아 남았던 것은 연이어진 방언들에서의 그것들의 독립적인 역사들의 토대에 근거하여 대부분 추측된다. 그러나 ḥ와 ḡ의 경우 이것들의 존재를 위한 증거는 그것들이 민용적인(demotic) 파피루스에서 여전히 규칙적으로 구분된다는 사실로부터 주로 추정된다. 이런 정서법적인 선택들의 결과는 (qop를 예외로 하면) 이런 텍스트들에게 Canaanite의 그것과 아주 비슷한 모습을 제공한다. 이러한 사실은 몇몇 학자들을 문법과 어휘와 양식에 있어서의 Canaanite 영향을 정당하지 못하게 주장하도록 이끌고 갔다. 자음 nun은 잇따르는 자음에 동화된다: ʔ, “you”.

3-2-2-1-2)형태론

ㄱ)명사들. 아람어와 다른 북서 셈족 방언들 사이의 가장 주목할만한 다름은 접미된 정관사 -ā(?)의 현존이다. 아마 그 근원에 있어서는 히브리어와 페니키아어 ha-와 동일할 형식[인] 이런 직시(deictic, 直視)적인 요소의 접미화는 아람어에게 히브리어에서와 같은 두 개의 명사 형(nonu state)(절대형과 연계형, absolute and construct state) 보다는 오히려 세 개의 명사 형(절대형, 연계형, 강조형 [또는 결정형], absolute, construct, emphatic [or determined])의 현존을 제공한다. 명사 접어(affixes)들의 형태론은 아래 도표에서 범형적으로 시도될 수 있다.

	absolute	construct	emphatic
m. sg.	mlk	mlk	mlk ^ʔ
m. pl.	mlkn (-īn)	mlky (-ay)	mlky ^ʔ (-ayyā ^ʔ)
f. sg.	mlkh (-a[h])	mlkt (-at)	mlkt ^ʔ (-atā ^ʔ)
f. pl.	mlkn (-ān)	mlkt (-āt)	mlkt ^ʔ (-ātā ^ʔ)

히브리어와 관련하여, 낱말 끝의 nun은 히브리어 m. pl. abs.에서의 mem처럼 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그 nun은 f. pl. abs.에서 기대될 taw 대신에 있다. 표

준 고대 아람어는 그러나 부가적인 형용사 대신에 f. pl. *taw*를 사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lhyt*, “bad” (Sefire III:2).

Samalian 방언이 다른 초기 아람어 방언들과 아주 두드러지게 다른 곳도 그것의 명사 형태론에서 이다. 그것은 정서법적으로 어떤 정관사도 지니지 않으며 그리고 *-t*로 끝나는 f. pl.을 지닌다. 그러나 그것의 가장 구분적인 특징은 격 구분 유지에 수반하는 복수에서의 nunation의 부재(absence, 不在)이다. 그래서 *ʔlhw*는 주격인 반면 *ʔlhy*은 “gods(신들)”에 해당하는 사격(목적격과/소유격)이다. Deir^cAlla 회반죽 벽 텍스트는 정관사의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않는다.

ㄴ)동사들. 세 가지 근본적인 변화(conjugations)들(어간들, stems)은 basic stem(근본 어간, *Pe^cal*: *katab/yiktub* 등), factitive stem(작위作爲 어간, *Pa^cel*: *kattib*), 그리고 causative stem(어간, *Ha^pel*: *haktib*)이다. 수동형들은 능동형의 내적인 모음 변화(modification)에 의해서 표현된다. (추측컨데 히브리어에서처럼 파생된 변화들에서의 모음패턴 u-a를 사용하면서 말이다. 중간태(Middle)의 경우 아람어는 수동분사와 동일하게 완료에서 *Peⁿ* 근본 수동 어간을 지닌다 그러나 이 초기에는 그런 형식을 위한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는다). 비록 *Nip^cal* 형이 Deir^cAlla에서 그리고 가능하게 Samalian에서 발생하기는 하지만, 어떤 *Nip^cal* 형도 표준(normative) 아람어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곧 내적인 수동형들에 의해 교체되기

시작 할 *taw* 접두음(augment)을 지니는 재귀/중간태 어간들(*ʔtpⁿ*)은 이 시기에는 여전히 드물다. Fakhariyah에서의 그 근본 어간의 재귀사는 여전히 아람어와 Ugaritic에서처럼 불허진(infixed) *taw*를 지닌다. 다음 쪽 표들에서는 확인된 동사 형식소(形式素)들이 보여진다.

접미 형식소들			접두/접미 형식소들		
	단수	복수		단수	복수
1c	-t	-n	1c	ʔ-	n-
2m	-t	-tm	2m	t-	t- -n
3m		-w	3m	y-	y- -n
3f	-t		3f	t-	y- -n

덧 붙여서 분리된 단축 명령형(jussive form)이 존재한다. 이러한 단축 명령형은 형태론적으로 (그리고 정서법적으로) 3 m pl. 그리고 2 m pl. (그리고 추측컨데 후기 아람어에서처럼 2 f. s.)에서의 그리고 미완료 형이 -h(추측컨데 /ē/)로 끝나고 그리고 그 단축 명령형이 -y(아마 단순히 /i/)로 끝나는 곳인 낱말 끝 약(weak) 어근들에서의 미완료 형과 다르다. 이 두 가지 형들이 (히브리어에서처럼) 미 완료 형의 경우 어간과 접미어 사이에 소위 “energetic” nun이 삽입되는 반면 단축명령형에서는 그렇지않는 대명사 접미어들을 지닐 때 마찬가지로 구분된다. Samalian은 그 미완료 대신에 단축 명령형과 같은 형식들을 사용한다(cf. Heb yktbw). Fakhariyah와 Mesopotamian과 Samalian의 경우에는 3인칭 명령 단축형이 yod 대신에 lamed를 preformative한 것으로 취할 수 있으리라(Akkadian precative를 참조하라). 이러한 형식은 후에 동부 아람 방언들의 l- / n- preformative의 조상이었을 것이다. 소위 “imperfect consecutive” 화법 시제가 Old Syrian Aramaic과 히브리어에 공통이었다는 것은 지금 분명하게 됐다. 그것을 이전에 “converted imperfect”라고 표현한 것은 잘못된 이름이다. 그것은 셈족 언어들의 어떤 보다 이른 시기에 생존하는 시원적인 접미적 preterite(과거형)의 잔존이며 그리고 여전히 Old Aramaic에서 발견된다(Zakkur 비문과 Deir‘Alla에서, 그러나 Sam‘al에서는 아니다). 그것은 *히브리어가 페니키아어* 보다는 *아람어*에 짝지워지는 측면을 나타내는 많은 문법적인 그리고 사전적인 등어선(isoglosses, 等語線)들 중의 하나이다.

자신의 명사적인(nominal)형식들에 있어서도 역시 고대 아람어는 이제 이전에 생각됐던 것 보다는 훨씬 더 히브리어에 접근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Syrian Old Aramaic에서는 특징적인 “*infinitive absolute*”(절대 부정형)이 확인된다(cf. Sefire III:2 hskr thskrhm, “you shall certainly hand them over”). 절대 부정형은 접미사들이 없이 형성된다. 반면에 대조적으로 파생 어간들의 “*construct infinitives*(연계 부정형)(동사적 명사들, verbal nouns)은 여성 어미를 지닌다(hzyh, “to see”: lhmtty, “to kill me”). 이런 연계 부정형에 접미된 대명사들은 형태론적으로 동사들에 붙는 접사들 보다는 오히려 명사들에 붙는 접사들과 같다. 그 근본 어간에서의 Fakhariyah는 (후대 아람어로부터 알려진) *mem* preformative를 지니는 부정형(infinitive, 不定型)들을 갖는 반면 (다시 히브리어와 같은) 다른 방언들은 *mem* 없는 단순(only) 형식들만을 여태까지 산출했다. 다른 한 편으로 Fakhariyah에서의 파생

된 오간 동사적 명사는 여성 어미없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Peʿal 수동 분사는 Peʿil이다(cf. Heb Pāʿûl).

3-2-2-1-2)구문론

다양한 동사 형들이, 비록 어순이 아마 다소 더 자유로웠을 것이기는 해도, 고전 히브리어 산문에서 발견된 구조(constructions)들과 실제적으로 동일한 구조들 속에서 사용된다. 2 개 언어로 [쓰여진] Fakhariyah를 제외하면, 공식 제국 아람어의 특징인 동사가 끝에 오는 어순은 아직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단지 Fakhariyah와 Mesopotamian에서만 우리들은 고대 한정(determinative) 대명사(후에 관계사)zy (dī > dī > d-)를 사용하는 소유 구문들에 직면한다. 복합 한정 직접 목적어(Complex definite direct objects)들은 불변사(particle) ʔyt(후대 서부 아람어에서의 ʔiyāt > yt; cf. 히브리어 ʔet를 참조하라)에 의해서 이끌려진다. 본 동사에 종속되는 동사구들은 만약 그 관계가 목적을 나타내는(telic) 것이라면 동사적 명사를 사용한다. 그러나 목적을 나타내는 관계가 아니라면 미 완료가 선호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특징적인 두 겹 부정사(double negative, 否定詞) pkhl Pšlh, “I shall not be able to send”를 초래한다.

3-2-2-2)제국 아람어

3-2-2-2-1)음성학.





추측컨데 음소들의 합병(mergers)들과 그리고 폐쇄음들의 마찰음화(spirantization, 히브리어에서의 begad-kepat 자음들의 ‘rafe’ 발음, 이것은 확실히 아람어 영향에 기인하는 것이다)의 잇따른 또는 부수적인 도입의 결과로서 자음들의 문자적인(graphic)표시들이 두드러지게 변하기 시작한다. 비록 이 기간 동안에 시원적인 정서법들이 공통적이라고 하더라도(특히 역사적인 d 대신에 z 그리고 본디 d 대신에 q를 지님), 그 언어는 여기에서 연이은 방언들이 지니게 될 자음 목록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합병된 이런 자음들은 다음과 같다: t̄ > t, d̄ > d, d̄ > ʿ, z > ʂ, h̄ > h(비록 어떤 방언들에서는 그 거꾸로이기는 해도), ġ > ʿ. ś가 s로 합병된 최초의 경향은 아마 마찬가지로 이 시기 탓으로 돌려질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모든 연이어지는 방언들에










공통이기 때문이다. 다른 특징적인 아람어 음성학적 특색—강세 없는 열린 음절들에서의 짧은 모음들의 감소—도 마찬가지로 이 시기에, 최소한도 i/u 모음들에 있어 (for), 자신의 시작을 지녔던 것처럼 보인다.

(표준 아람 문어의 토대인) 그 공식 언어의 기록할만한 가치있는 특색은 긴 (“doubled”, 겹쳐진) 자음들을 *nun* + 자음으로 이화(dissimilation, 異化)시키는 정서법적인 표시 과정인, 혼한 비음화(nasalization, 鼻音化)이다. 예를들어 ʔnt(h), “you”와 같은 그런 몇몇 형식들에 있어서의 *nun*은 어원론적으로 올바르지만 고대 아람어에서는 동화됐다. 예를들어 mnd^c “knowledge”와 같은 다른 몇몇 형식에 있어서의 그서는 엄밀하게 음성학적인 현상이다.

Imperial Aramaic alphabet

Redrawn from *A Grammar of Biblical Aramaic*, Franz Rosenthal; forms are as used in Egypt, [5th century BCE](#). Names are as in [Biblical Aramaic](#).

Letter name ta	Letter form	Equivalent Hebrew	Pronunciation
Aleph		א	glottal stop ; ā, ē
Beth		ב	b, v
Gimel		ג	g, gh
Daleth		ד	d, dh

Heh		ה	h
Waw		ו	w; ō, ū
Zayin		ז	z
Heth		ח	H (voiceless pharyngeal fricative); kh in modern pronunciations
Teth		ט	emphatic t
Yodh		י	y; ī, ē
Kaph		כ / ך	k, kh
Lamed		ל	l
Mem		מ / ם	m
Nun		נ / ן	n

Samekh	ס	ס	s
Ayin	ע	ע	voiced pharyngeal fricative
Pe	פ	פ / פ	p, ph
Sade	צ	צ / צ	emphatic s; ts in modern pronunciations
Qoph	ק	ק	q (voiceless uvular plosive)
Resh	ר	ר	r
Sin/Shin	ש	ש	usually sh; in some words s (probably originally a lateral fricative)
Taw	ת	ת	t, th

3-2-2-2-2)형태론

사적인 편지들의 반(半)-민용(demotic, 民用)적인 언어는 후에 그 공식언어에서 나타나게 될 특색들의 증거가 된다: Hap^{el}(hktb/yhktb)의 ap^{el}(^oktb/yktb)에로의 약해짐과 복수인칭접미사들에 있어서의 *mem*을 *nun*으로 교체함. IIIy 동사들의 3인칭 복수 완료에 있어서의 -n의 그리고 파생된 어간 부정사(infinitives, 不定詞)들의 *mem* preformative의 후대 서부 아랍어 특색들이 마찬가지로 발견된다. 그 공식언어에 있

어사의 변화들은 부정사(不定詞)를 단일한 형식(Pe'al mktb)으로 단순화하는 것과 3인칭 여성 복수 대신에 3인칭 남성 복수를 사용하는 것과 한정(determined) 복수 어미 -ē가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런 형식들은 gentilics와 collectives(집합사)에 처음으로 나타나며 그리고 후에 동부 방언들에서 남성 복수의 보통 어미로서의 -ayyā를 대신하게 된다.

3-2-2-2-3)구문론

제국 아람어를 특징지우는 형태구문론적인 발전들은 그 언어의 몇몇 특색들을 제한하면서 다른 특색들을 확장하는 것을 포함한다. 내적(internal) 수동태들의 사용은 ʔt- preformative 어간들을 선호하는 가운데 제한된다(단지 ʔetpe'al과 ʔetpa'al 만이 이 시기에 확인된다). 내적 수동태들은 사역(causative)형 변화에서 가장 오래 생존했던 것처럼 보인다. Biblical Aramaic 낱말-첫 부분 ht-은 아마 Hebraism일 것이다.

명령법/단축명령(imperative/jussive) 대조는 산발적으로 중성화된다. 고대 아람어에서는 단지 명사로서 사용된, 분사는 현재 시제 동사로서 이용된다. 사적인 편지들에서는 동사 hwy, “to be”의 형식들을 지니는 분사를 사용하는 복합시제가 발전한다. 이런 복합시제는 후대 방언들에서 공통으로 된다. “imperfect consecutive”(결과 미완료)는 화법(narrative) 시제에서 사라진다.

불변사(particle)들의 분포는 두드러진 변화를 겪는다. 한정(definice)직접 목적어를 표시하는 불변사 ʔyt(후에 yt)은 그 목적어에 붙여진 접미어 l-로 교체된다. genitival construction(소유 구문들)을 표시하는 한정된(determined) 대명사로 dy/zy(후대 아람어 d-)을 사용함이 폭 넓게 퍼진다.

어순은 민용적인 그리고 시원적인(demotic and archival)재료들에서 일반적으로 변하지 않은 채 유지된다. 그러나 공식적인 편지들(과 성서 아람어)의 공식 언어에서는 [문장] 끝[에 오는] 동사 구문들(verb final constructions)이 인도-유럽어인 아마 페르시아어의 영향에 의해, 아주 일반화된다.

3-2-2-3)후대 방언들

3-2-2-3-1)음성학

강세없는 음절에서의 짧은 음절들이 줄어들며, 어떤 경우에는 토탈적으로 생략된

다. 모음찍기(vocalization)전통들은 끝 격 모음들의 손실 후 그 시기의 강세(stress)는 일반적으로 낱말의 끝 음절에 놓여졌다는 것을 가리킨다. 비록 현대 방언들(과 몇몇 읽기 전통들은) 페널티(penultimate)에 강세가 오는 강한 경향(이런 모음들의 손실에 앞서 획득됐던 음성학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해도 말이다. 후두/인두(laryngeal/pharyngeal) 자음들의 약해짐은 Palestinian 방언들(Samaritan과 몇몇 Galilean)과 Babylonian 이 양자의 특색이다. Syriac과 Babylonian에서는 끝 강세없는 긴 모음들이, Babylonian에서의 끝 유음(liquids)들과 비음(nasals)들과 치간음(interdentals)들에서처럼, 생략된다.

모든 아람 방언들의, 실로 모든 셈족 언어들의 특징은 강세의 다른 환경들과 음절 길이에 있어서의 모음 질의 다양화(variation)이다. 심지어 그런 변화들이 후대 아람어에서 도입된 모음 찍기(vowel pointing)의 도식에서 단지 불규칙적으로만 가리켜지는 해도 말이다. 전형적으로 전설모음과 후설모음들은 단혀진 강세음절에서 혀의 위치를 올리고(raised) 단혀진 강세없는 음절들에서는 혀 위치가 낮춘다. 서부 Syriac에서는 모든 중간 모음들과 낮은 모음들이 혀의 위치를 올린다. 그래서 $\bar{o} > \bar{u}$, $\bar{e} > \bar{i}$, 그리고 $\bar{a} > \bar{o}$. 몇몇 방언들에서의 이중모음의 단순화가 비슷하게 조건지워진다. 다른 방언들(특히 Syriac)에서의 ay와 aw는 읽기 전통에서 (거의 확실하게 이차적인 복원(restoration) 때문에)끈질기게 보존된다.

3-2-2-3-2)형태론

Hatran과 Syriac(중중 Palmyrene에서)과 Babylonian에서의 $-\bar{e}$ 는 연구개조음(emphatic)적인 접미어 정상적인(normal) 남성 복수로 됐다.

Hap^ʿel 재귀형/수동형 ʔettap^ʿal(<ʔetap^ʿal)은 아람어의 모든 후대 가지들에서 나타난다. 내적 수동형들의 소멸 후에 어간 형성의 다음과 같은 균형적인 패턴이 아람어에 독특하게 됐다:

Basic:	kēṭab	ʔetkēteḅ
Factitive:	katteḅ	ʔetkattab
Causative:	ʔakṭeḅ	ʔettakṭab

비록 접두어 š-와 s-를지닌 파생 어간들의 명사적인 집단이 발생하지만,

Akkadian으로부터 차용된 어떤 것들과 다른 것들은 의심할 것도 없이 그 언어의 보다 이른 시대부터 생존한다(예를들어 šakkel, “to complete”; ša‘bed, “to enslave”). Šap‘el은 아람어에서 생산적인 사역(productive causative) 변화가 아니다.

파생된 어간들의 부정형(infinitive, 不定形)은 예를들어 Hap‘el에서처럼, 실질적인(substantial) 다양함을 계속 보여준다:

- SLA ʔaktābā (ʔaktābū- 접미어들 앞에서)
- Western maḳtābā (그러나 동사적 명사로서의 ʔaktābā)
- Syraic maktābū
- Babyl. ʔaktōbē (마찬가지로 proto-Eastern Neo-Aram에서)

시원적인 분사(kāteb)는 하나의 시제로 됐으므로, 새로운 명사적인 분사 kātōb가 자주 나타난다.

Babylonian의 경우, precative preformative l-이 preformative 시제의 정상적인 접미어(때로 n-)인 반면 Classic Syriac에서는 n-(추측컨데 단순히 l-의 음성학적거인 다양성일 뿐일 것이다)이 사용된다.

Palestinian Jewish Targumic과 Galilean에서의 1 c.s. 미완료의 접미어는 (ʔ- 대신에) n-이었다.

3-2-2-3-3)구문론

동부 아람어에서의 명사적 states의 체계는 재구성되어서 연구개조음(emphatic) (고대 determined 한정) 형이 명사의 보통 형으로 된다. 그래서 malkā는 “the king” 또는 “a king”을 의미한다. 폐기된 고대 형은, 수사들을 지닌 것들과 마찬가지로, precative nominatives(술어적 주격들)과 distributive construction(분배 연계형)에서 보존된다. 대명사적 접미어들을 지닌 한정형(bound form)과 연계형(construct state)이 양자의 사용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제한된다. Palestinian Jewish Targumic은 동사들에로의 대명사적 접미어를 회피하는 경향을 지니게 된다.

처음에는 완료에 한정됐던, 내적 수동태는 마침내 ʔ- 어간들로 교체된다.

대부분의 방언들에서 분사들은 결국 심지어 일반적인 현재-미래로서의 미완료를 대신하면서, 충분히-독립된(full-fledged) 현재로 된다. (그런 후, 미완료는 하나의 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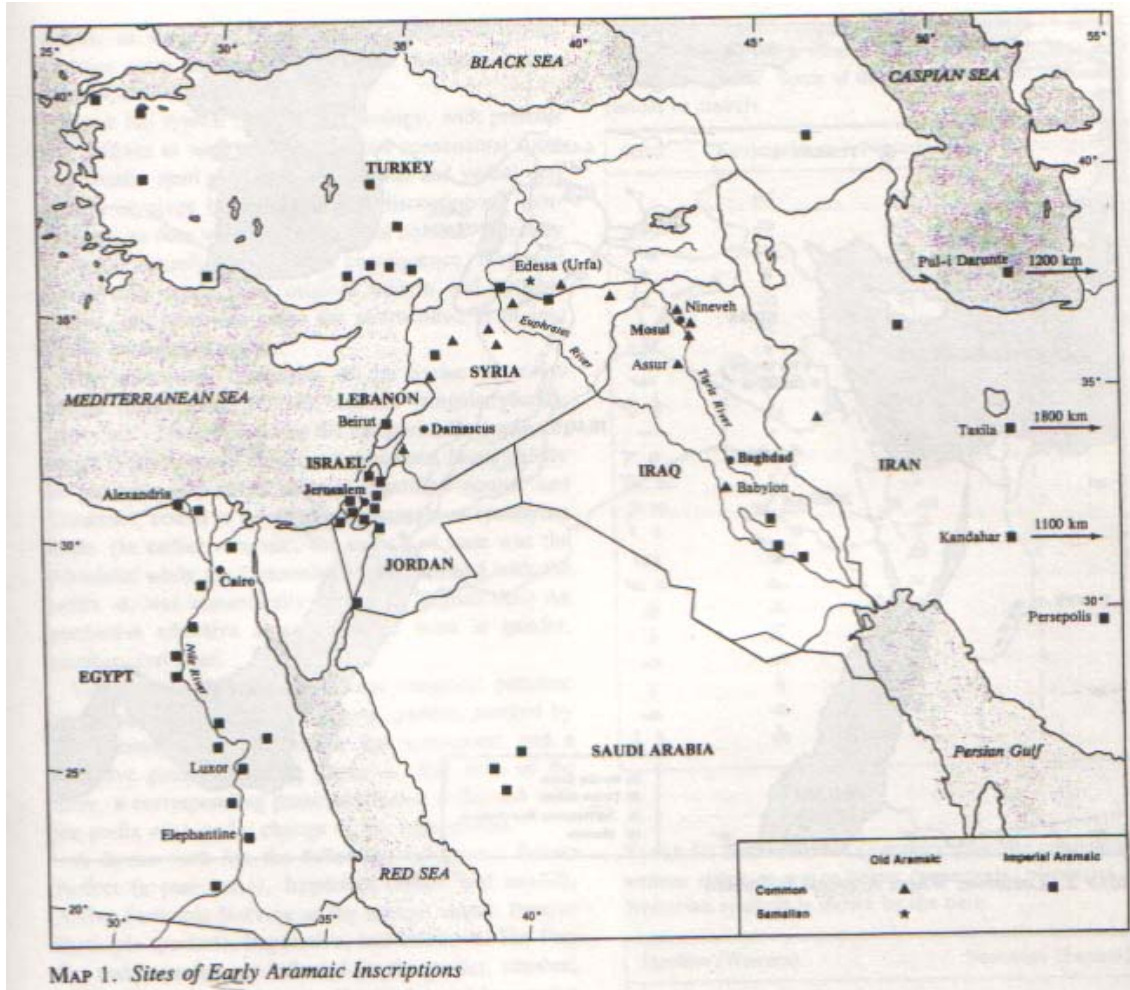
상 형식(modal form)으로 제한되어 사용된다). Syrian과 Babylonian의 경우 대명사들은 주어 표시자들로서 분사에 전접적(enclitically)으로 붙는다: kātēb + ʾānā > kātēbnā. (서부 아람어의 경우 대명사들은 분사에 선행했다. 이것이 Maṣlula에서의 현재-미래형들의 기원이다.)

Proto-Eastern Neo-Aramaic은 고대 완료를 토탈적으로 대신한 수동 분사로부터 새로운 과거 시제를 발전시킨다: kētīb-lī, “I wrote”. 궁극적으로 현재-미래 체계가 잘 다시 모양지어진다: 현재-미래(고대 분사)가 고대 미완료를 전체적으로 대신하며 그리고 새로운 현재 시제 형들이 발전된다. ///

// 3-2-3)아람어(Aramaic)

아람어는셈어군의 한 가지이다. 그것은 기원전 10 세기까지 날짜가 매겨지는 비문들과 서류들의 그리고 여러 문어들의 그리고 오늘 날짜까지 말해지는 다양한 방언들의 언어이다. 그것은 천 년 넘게 근동의 상호 국제적인 의사소통의 매개체였으며 중요한 기독교과 유대교 문헌의 언어이다. 그러나 *지금 그것은 단지 약 200,000 명의 화자들만을 지닌다.* 일상적인 분류는 아람어를 다섯 시기로 나눈다: Old, Imperial, Middle, Late, 그리고 Modern. 지질학적 다양함이 이 모든 시기들에 명백해진다(지시를 위해서는 Nöldeke 1904, Rosenthal 1961, 1967, Kutscher 1970, 1971, Kaufman 1974, Segert 1975, Fitzmyer 1979, Krotkoff 1982, 그리고 Beyer 1986).

Old Aramaic(고대 아람어)는 기원전 10세기부터 기원전 7세기까지 시리아와 터키에서 발견되는 비문들에서 확인된다. 두 가지 확인된 방언들 중에서 Samalian(때로 Yaudic으로 지시되는)은 일찌기 사라졌으며 단지 Common Old Aramaic(공통 고대 아람어)만이 그 언어의 후대 다양함들에 밀접히 관련된다. 위치들을 위해서는 다음 쪽 지도 1을 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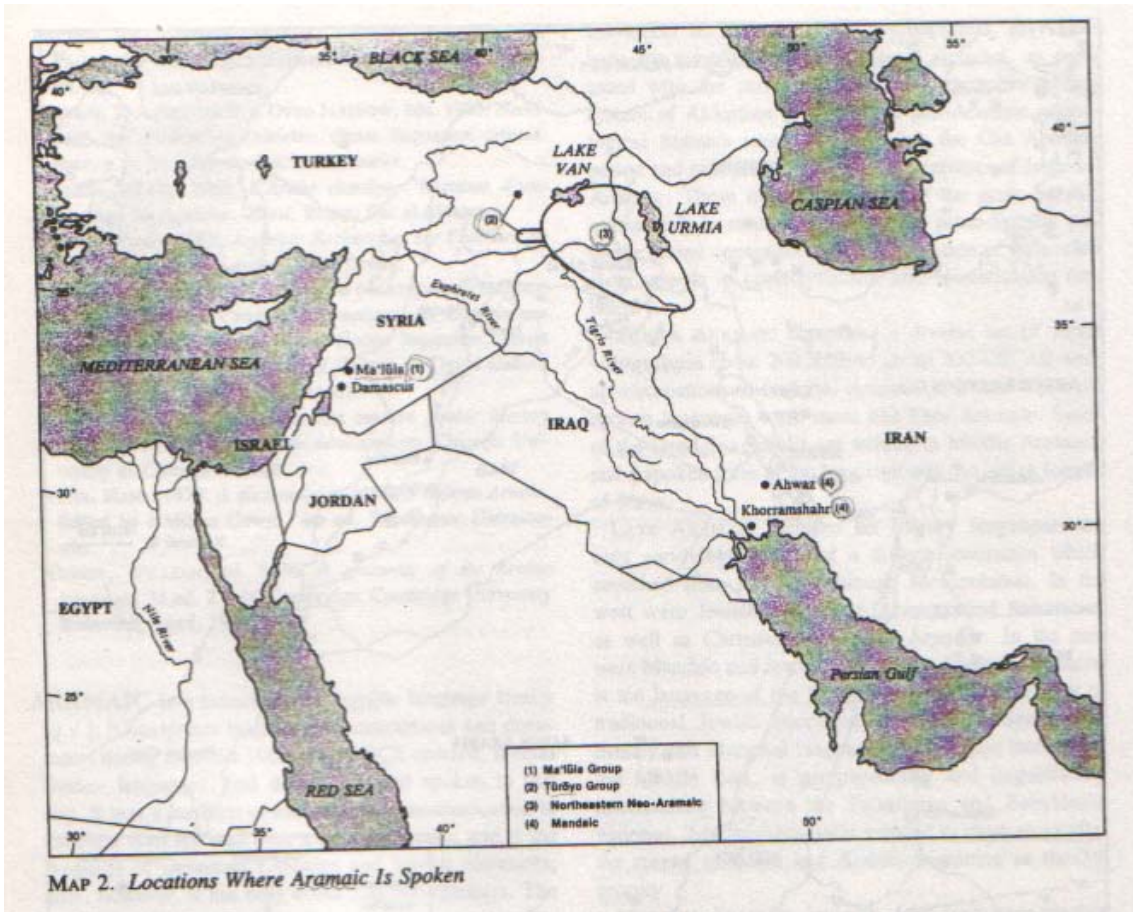
Imperial(또는 Official) Aramaic(제국 또는 공식 아람어)는 기원전 약 700 년부터 기원전 200 년까지 Assyrian과 Babylonian과 Persian 제국들에서 폭 넓게 사용됐다. 그것은 이집트에서 파키스탄에 이르는 비문들과 서류들에서 그리고 Daniel과 Ezra의 Biblical books(성서)에서 확인된다. 아람인들의 메소포타미아로의 이동 이외에도, 아람어의 두루 퍼진 공식적 채용을 위한 중요한 이유는 Akkadian의 썬기문자 음절적/어표적(syllabic/logographic) 글쓰기 체계와 비교해 볼 때 드러나는 아람어 알파벳의 단순성일 것이다. 많은 모든-아람어 음성학적인 특색들은 단지 고대 아람어 시기 이후에야 떠오르며 그리고 아마 제국 아람어의 특징들로서 퍼졌을 것이다. 이것들은 proto-셈어 간치음(interdentals)들의 폐쇄음들로의 변이와 원시-셈어 연구 개조음(emphatic)의 ʔ에로의 변이(shift)와 열린 음절에서의 강세없는 짧은 모음들의

감소와 마찰음화(spirantization)를 포함한다.

Middle Aramaic(중기 아람어)는 기원전 약 200 년부터 기원후 약 200 년 사이의 글로 쓰여진 다양한 세트의 형식들을 함유한다. 말해진 그 언어들에 후대 아람어와 더욱더 비슷했을 때의 모든 것은 제국 아람어와 유사했다. *사해 두루마리*들 몇몇은 중기 아람어의 글로 쓰였으며 그리고 그 언어의 말해진 형식이 **예수님**의 자국어(native tongue)였다.

Late Aramaic(후대 아람어)는 단지 Palestine으로부터 Mesopotamia를 두루 거쳐 퍼진 연속적인 방언(dialect continuum)의 기록들만이 생존하는, 여섯 문어들을 포함한다. 서부에는 기독교 팔레스타인 아람어와 마찬가지로 Jewish Palestinian Aramaic과 Samaritan이 있었으며, 동부에는 Mandaic과 Jewish Babylonian Aramaic이 있었다. 후자가 오늘 날까지 전통 유대 교육의 핵심인 **Babylonian Talmud**의 언어이다. 중동에 두루 걸친 기독교인들의 문어적인 그리고 제의적인 언어인 **Syriac**은 지질학적으로 그리고 언어학적으로 팔레스타니안과 바빌로니안 다양함들 사이의 중간자적인 것이다. 7 세기에 시작된 이슬람과 아람어의 확장 후에 대부분의 지역에서 점차적으로 아람어는 약해진다(물러난다, recede).

Modern Aramaic(현대 아람어)은 오늘 날 말해지는 네 가지 언어들을 포함한다: ㄱ)시리아에 있는 Ma'lūla 집단; ㄴ)남동 터어키에 있는 Ṭūrōyo; ㄷ)북 이라크와 그리고 이란과 터어키의 인접지대들에 걸쳐있는 지역의 Northeastern Aramaic; ㄹ)Khuzista과 Iran에 있는 현대 Mandaic. 위치들을 위해서는 다음 쪽 지도를 보라.



현대 아람어 화자들의 주요한 커다란 집단은 북동 아람어로 말하는데, 그들은 대부분의 무슬림이 Kurdish와 Azerbaijani Turkish로 말하는 지역의 소수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이다. 북동 아람어는 놀라운 양의 방언적 다양함을 드러낸다. 그러나 그 자체 종족을 나타내는 ‘Assyrian’과 ‘Chaldean’은 주로 기독교 분파와 상호관련되지 방언과 상호관련되지는 않는다. ‘Moder

n Syriac’이라는 용어는 단지 기독교인 화자들에 의해 사용된 스크립트에 의해서만 정당화된다.

자신의 역사를 두루 통해 아람어는 어휘와 문법적 구조에 있어 많은 이웃 언어들에 영향을 미치면서 영향을 받아왔다. 가장 중요한 그 언어들인 Akkadian, Persian, Greek, 그리고 Hebrew이다—시공간과 종교적/문화적 합병에 따라 다양한 정도에서. 현대 아람어는 문법적인 특색 뿐만 아니라 어휘들을 많이 Arabic, Kurdish, 와

Turkish로부터 지닌다. 그렇지만 심지어 그 현대어에 있어서조차 어휘의 아주 많은 부분이 본디(native) 아람어 사전(어휘)로 거슬러 올라 갈 수 있다.

Classical Syriac(고전 시리아어)는 가장 광범위하게 그리고 엄밀하게 문서화된 아람어이다. 고전 시리아어의 자음소들은 아래 표에서 보여진다.

TABLE 1. *Syriac Consonants*

	Labial	Dental	Alveolar	Palatal	Velar	Uvular	Pharyngeal	Glottal
Stops								
Voiced	b	d			g			
Voiceless	p	t			k			(?)
Emphatic		ṭ				q		
Fricatives								
Voiced	<u>b</u>	<u>d</u>	z		<u>g</u>		ʕ	
Voiceless	<u>p</u>	<u>t</u>	s	ʃ	<u>k</u>		ħ	
Emphatic			ṣ					
Nasals	m	n						
Vibrant		r						
Lateral		l						
Glide	w			y				h

측음과 치음과 연구개 마찰음들은 표층 수준에서의 음소들이다. 그러나 보다 더 추상적인 수준에서의 \bar{p} , b , t , d , k , \bar{g} 는 상응하는 폐쇄음들 p b t d k g 의 변양(variants)들이다. 그 언어의 초기 무대에서의 t q 이외의 다른 폐쇄음(stops)들은 모음 뒤에 오며 그리고 짝을 이루지 않을 때(when postvocalic and not geminate), 마찰음화(spirantization) 규칙에 의해서 마찰음화(fricatives)됐다. 그러나 확인된 시리아의 경우, 이런 규칙은 부분적으로 마찰음화 후의 모음들의 탈락을 통해서 그리고 부분적으로 형태론적이고 사전적인 예외들의 창조를 통해서 훨씬 덜 통용된다(transparent).

우리들은 초기 Syriac에 해당되는 다음과 같은 모음들을 재 구성할 수 있다: 긴 모음 \bar{i} , \bar{e} , \bar{a} , \bar{o} , \bar{u} , 짧은 모음 e a u (\bar{e} 는 \bar{e} 보다 높으나 상대적으로 드물다). 짧은 모음들은 일반적으로 열린 음절에서 탈락된다. 비록 보다 이른 그리고 보다 후의(Biblical 그리고 Modern) 아람어가 음소적인 강세를 지닌다고 하더라도, Syriac에서

의 의미있는 엑센트는 알려지지 않았다.

아래 표들에 의해 보여진 것처럼 세 가지 친족 스크립트들로 Syriac(시리아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 쓰여졌다.

TABLE 2a. Traditional Order of Consonants in Syriac Scripts. Variant forms used at the ends of words appear to the left in the table. Some of the sounds occur only in certain periods or dialects.

Serto	Estrangelo	Nestorian	Transcription
Ⲁ	Ⲁ	Ⲁ	ʔ, zero
ⲁ	ⲁ	ⲁ	b, b
Ⲃ	Ⲃ	Ⲃ	g, g
ⲃ	ⲃ	ⲃ	d, d
Ⲅ	Ⲅ	Ⲅ	h
ⲅ	ⲅ	ⲅ	w
Ⲇ	Ⲇ	Ⲇ	z
ⲇ	ⲇ	ⲇ	h
Ⲉ	Ⲉ	Ⲉ	t
ⲉ	ⲉ	ⲉ	y
Ⲋ	Ⲋ	Ⲋ	k, k
ⲋ	ⲋ	ⲋ	l
Ⲍ	Ⲍ	Ⲍ	m
ⲍ	ⲍ	ⲍ	n
Ⲏ	Ⲏ	Ⲏ	s
ⲏ	ⲏ	ⲏ	c
Ⲑ	Ⲑ	Ⲑ	p, p
ⲑ	ⲑ	ⲑ	s
Ⲓ	Ⲓ	Ⲓ	q
ⲓ	ⲓ	ⲓ	r
Ⲕ	Ⲕ	Ⲕ	e
ⲕ	ⲕ	ⲕ	i, i

TABLE 2b. *Syriac Vowel Diacritics*. Jacobite symbols are written either above or below consonants; placement of Nestorian symbols is shown by the dash.

Jacobite (Western)	Nestorian (Eastern)
ⲓ i	ⲓ̄ i
ⲉ e	ⲉ̄ e
ⲁ a	ⲁ̄ a
ⲟ o (< ā)	ⲟ̄ o, ā
ⲡ u	ⲡ̄ u, ū

구분 모음 질들은 선택적인 분별기호(diacritics)에 의해서, 히브리어 스크립트와 아랍어 스크립트에서처럼, 가리켜졌다.

시리아어(Syriac)는 불연속적인 자음 어근들과 모음 어간 형태소들과 마찬가지로 접두사들과 접미사들을 지닌 전형적인 셈어 형태론을 지닌다. 명사적 그리고 동사적 파생어는 동사 변화(inflexion)가 그렇듯이, 접사(affixes)들과 불연속적인(discontinuous) 형태론 이 양자를 포함한다. 그러나 명사 변화는 거의 전적으로 접사적(affixal)이다. 따라서 차용된 명사들은 자신들의 본디 모음들과 음절적인 모양들을 유지할 것이나, 차용된 동사들은 시리아어의 규범적인 패턴들에 맞게 다시 구성된다.

시리아어 **명사** 변화 범주들은 성(남성/여성)과 수(단수/복수)와 ‘state’(상태)이다. State(상태)는 기능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범주, 한정사(Determinate)를 포함하며, **절대형**(Absolute)은 주로 술어적 형용사와 량화된 명사들에서 발견되고, **연계형**(Construct)은 잇따르는 소유자 또는 구체화되는 명사와 결부된다. (더 이른 아랍어의 경우 표시되지 않는 state(상태)는 절대형이었으며, 접미어 -ā와 함께 형성되는 한정형(Determinate state)은 의미론적으로 영어의 the와 비슷했다.) 부가적인 형용사는 성과 수와 상태(state)에 있어 자신의 명사에 일치했다.

동사 파생은 세 가지 근본적인 규범적 패턴들을 지닌다: **표시되지 않는 패턴**; 중간

어근 자음과 짝을 이룸에 의해 표시되는 ‘강조’(intensive) 패턴; 그리고 접두어 a-를 지니는 사역(causative) 패턴. 이 세가지 것 각 각에 상응하는 수동/재귀 형이 접두어 et(t)- 그리고 어간 모음들의 변화들에 의해서 형성된다.

시리아어 동사는 다음과 같은 변화 형들을 지닌다: 완료(과거 시제), 미완료(미래와 양상modal), (현재 시제로 봉사하는) 능동 분사, 수동 분사(완료), 미완료, 그리고 부정형(infinitive 不定形). 완료와 미완료는 성과 수와 주어의 인칭에 따라 변하며, 분사들과 명령형들은 단지 성과 수에 따라 표시된다. 수동분사는 현재완료 의미를 지니는 구문론적으로 능동구문 안에서 자주 나타난다. (구문론적인 주어인) 능동인(the agent)은 그런다음 전치사 l-과 함께 표시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전치사 l-는 직접 또는 간접 목적어들 혹은 소유자들을 표시하지, 수동의 능동인(대리인, agent)들을 표시하지 않는다. 이런 구문에서의 소위 수동 분사는 심지어 자동사들로부터도 형성될 수 있다: šmīf l-ī ‘I have heard’, azīl l-I ‘I have gone’.

어순, 주어와 목적어는 문장안에서 자유롭다. 그러나 어순의 다른 특색들은 동사 + 목적어 유형론(typology)을 따른다. 그래서 형용사는 명사 뒤에 오며, 전치사들은 자신들의 목적어에 선행한다. ‘A is B’를 의미하는 시리아어 문장들은 어떤 동사도 포함하지 않는다. 대신에 그러한 문장들은 ㄱ)주어를 나타내는 그러나 술어의 첫 낱말 뒤에 오는 전접적인 대명사를 가지든지 또는 ㄴ)주어를 나타내는 대명사적 접미어를 지니는, 불변사(particle, 부분사)?it ‘there is’을 가진다.//

4)종교

비록 그들의 판테온(pantheon)이 Canaanite와 Babylonian과 Assyrian 신들을 포함했긴 했어도 아람인들은 그들 자신의 신성(deities)들을 지녔다. 그들의 주요한 신은 Hurrian의 폭풍우의 신 Teshub과 동일시되는 Ramman(구약에서는 Rimmon) 또는 Hadad 였다. 그들의 주요한 여신은 페니키안 Astarte와 Anath에 상응하는 두 신성들의 융합인 Atargatis(Atar’ate)였다. 그녀의 주요 사원은 시리아의 Hierapolis에 있었다. 마찬가지로 아람인들은 달의 신인 바빌로니아인 Sin, 지혜의 신 Nabu, 태양의 신 Shamash, 신들의 아버지 Canaanite El, 전쟁과 번개의 신 Reshef, 그리고 많은 다른 신들도 경배했다. Yau 즉 **Yahweh**(야훼)가 Hamath에서 아람인들에 의해 경배

된 신들에 포함됐다는 어떤 증거가 있다.

5)문화

상대적으로 소수인 예술 작품들과 고고학에 의해 발견된 것들로부터 특별하게 아람 문화를 뽑아 내는 것은 거의 가능하지 않다. 아람 왕들 특히 Bit-Baniani와 Sam'al의 왕들은 강한 Hittite 또는 Mitannian 영향 하에서 지방 특유의 형식의 시리아 예술을 후원했다. 이런 아람인들은 그런 사람들의 지방 옷차림을 분명히 갖추었다 그러나 시리아 예술가들은 아람인들을 Til-Barsip에서 프레스코 화법으로 베두인들처럼 묘사했으며, 그리고 자신들의 조각들에서 그들은 짧은 킬트(kilt)와 턱수염을 기른, 머리띠를 지닌, 여자들의 경우에는 긴 휘장들을 걸친, 메소포타미아의 아람인들을 보여준다.

